

제438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8월19일(수)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라. 재외동포청 소관
3. 업무보고
 - 가. 외교부
 - 나. 통일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라. 재외동포청
 - 마. 한국국제협력단
 - 바. 한국국제교류재단
 - 사. 한·아프리카재단
 - 아. 재외동포협력센터
 - 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상정된 안건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6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라. 재외동포청 소관
3. 업무보고 6
 - 가. 외교부
 - 나. 통일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라. 재외동포청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송석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의사중계시스템 및 유튜브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1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제22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당시 일정 등으로 인사말씀을 듣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가운데 아직 인사말씀을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주 격전을 치르셨지요. 법사위에서 저와 정말 아주 두터운 그런 인연을 맺으셨던 정청래 위원님께서 전당대회를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로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하지만……

먼저 정청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정청래입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하던데 송석준 위원장님과 필연적으로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외교 역량이 중요하지요. 대외의존성도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문명사적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AI 혁명 시대입니다. AI·반도체 패권이 국익과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발 북미 대화의 시그널이 한반도 평화시계를 빨리 돌릴 그런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하고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정말 여야가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상임위보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그러한 면에서 여야가 합심 노력해서 국익 추구를 하는 데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다음은 국민의힘 고동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병 대치·도곡·삼성동 고동진입니다.

외통위에 배속돼서 매우 반갑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외교·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시대에 중요한 사안인지 저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 동료·선배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석준 다음은 차지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또 중요한 선거에 나가시기로 되어 있지요.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차지호 위원 차지호입니다.

아까 정청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가 AI와 큰 전환 요인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이전에 양자 간 협력관계에서의 외교에 초점 맞추는 것에서 다자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이끌어 나가는 시기로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엔 보건복지위의 추천으로 국회의장께서 추천을 하셔서 WHO 사무총장후보로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무리되면 외통위원님들께 인사드리고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의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석준 다음은 또 민주당의 중요한 당직을 맡게 되신 한정애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지요.

○한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서울 강서구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정애입니다.

송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에 함께하게 되신 위원님들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조현 장관님, 정동영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께도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제적으로 외교·안보 질서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논리나 구조가 잘 작동되지 않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가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뒷받침을 하는 그런 외통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함께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 잘 들으면서 저도 같이하겠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8월 18일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영호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 보임하신 김영호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배·동료 위원님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외통위는 제가 4년 전에 당시 간사로 역임하면서 의정활동이 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외통위가 아무쪼록 국회 상임위 중에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저역시도 노력하겠고 여야 위원님들의 강력한 협조 아래 우리 상임위가 앞으로도 잘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이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22대 국회 하반기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세계

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 지난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지칭하는 세계에서 모범적인, 포용적인 국가제도를 가진 나라로 정치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낸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과거 구한말 못지않은 아주 엄중하고 정말 격동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분단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역대 어느 때보다도 최강의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호도하고 또 투발 수단도 완성했다고 자랑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선에 수만 명이 참전하면서 실전 훈련을 하고 실전 경험을 쌓는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통일외교, 안보경제 환경은 그야말로 가장 위태롭고 위기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현명하게 제대로 된 외교정책, 통일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과 같이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 소위원회의 소위원 선임과 소위원장 선출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은 협의가 마무리된 후 처리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과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하고 정부 측의 결산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은 각 기관장으로부터 결산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함께 듣고 그밖의 우리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된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실시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부는 의사일정 제1항을 처리하여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을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국민의힘 김대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속보가 하나 났는데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UFS, 을지연습 훈련이 21일로 조기종료된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현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긴급현안보고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외교부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UFS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 지시를 언제 처음 인지했는지 저는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미국 측의 훈련기간 단축과 후반부 연습 조정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결정 난 뒤에 일방통행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확인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의 파트너인지 미국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당사자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현 장관님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보고 전에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석준 잠시 후에 외교부의 업무보고가 있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응답 시간이 있지만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께서 지금 긴급뉴스를 보시고 의사진행발언해 주셨는데 외교부장관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사실은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만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겠다면 간단히 말씀은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전체 맥락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송석준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지금 먼저 간단한……

○이기현 위원 같이 하시지요. 바로 보고인데요.

○이재강 위원 같이 하시지요.

○홍기원 위원 전체 보고받고 하시지요.

○위원장 송석준 전체를 보고받고?

○홍기원 위원 예.

○위원장 송석준 김대식 위원님 혹시……

○김대식 위원 지금 현재 속보로 떴기 때문에 현안 문제 이거는 종합적으로 받기 전에 간단하게, 지금 조현 장관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우선 좀 거기에서 간단하게 설명 듣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송석준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이제 정식으로 질의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특별히 의사진행발언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장관님 지금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우선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한미동맹은 굳건하고 각 층에서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훈련기간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트루스 소셜에 나온 이후에 저희들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국방부로부터 전해들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석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홍기원 민주당 간사님께도 의사진행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홍기원 위원 이미 외교부장관이 다 말씀을 하신 상황인데요, 사실 김대식 간사님이 제기한 사항 여러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해하고 국민들도 궁금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

연히 외교부장관의 종합적인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보고를 다 듣고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묻도록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1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잠깐, 잠깐, 발언권 받고 하세요.

지금 김대식 위원님 궁금하신 게 많이 있으신가 본데……

○김대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확인해 주실 게 외교부장관……

○위원장 송석준 그러면 제가 1분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외교부장관이 방금 보고하는 대로 결국 우리는 미국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까? 그것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송석준 지금 다시 김대식 위원님이 외교부장관님께 좀 여쭙봐달라고 하는 것이 미국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느냐……

○이재강 위원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따 업무보고 할 때 하면 되는 거지.

○홍기원 위원 아까 다 발언하셨잖아요. 추가로 할 게 뭐가……

○위원장 송석준 이것에 대한 것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지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이 훈련기간 축소에 관한 것이라는 질문이십니까? 그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이 함께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이제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본격적인 업무보고 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외교부 소관

나. 통일부 소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라. 재외동포청 소관

3. 업무보고

가. 외교부

나. 통일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라. 재외동포청

(10시25분)

○위원장 송석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업무보고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님께서서는 참석한 간부와 소관 공공기관장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현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외교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업무현황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부장관 조현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조현입니다.

먼저 새로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처음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당적 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외교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주 1차관입니다.

김진아 2차관입니다.

김홍규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입니다.

정의혜 차관보입니다.

박두순 대변인입니다.

임상우 공공외교대사입니다.

김정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입니다.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입니다.

견종호 기후변화대사입니다.

강명일 외교안보연구소장입니다.

박영효 국제사이버협력대사입니다.

(인사)

국장급 간부 명단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2025년 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외교부 결산 개관입니다.

외교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총 수입액은 4727억 원이고 총 지출은 4조 2232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의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액은 3574억 원으로 예산현액 2737억 원보다 837억 원이 초과수입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당초 예산액 4조 2218억 원에서 추경을 통해 496억 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이월액 19억 원과 수입대체초과지출 승인액 221억 원이 더해져서 예산현액은 4조 1962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4조 107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 1조 9292억 원, 국제기구분담금 7827억 원, 재외공관 운영 7751억 원순이고 3개 부문이 총지출의 약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 주요 예산변동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 외교부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변경, 외교연구용역 미완료 등의 사유로 이월액 27억 원이 발생하였고 재외공관 인건비 등 국제기구분담금 납부 잔액 또 전략적 협력 강화, 즉 ODA 지급 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서 856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금 및 재무 결산내역 등의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주요 업무에 대해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과의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외교정책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미 정상회담의 상호 방문으로 핵추진 잠수함, 민관 원자력 협력, 조선투자 등 전례 없는 새로운 분야와 수준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격상시키는데 합의하였으며 올해 G7 또 NATO 정상회의 계기에 양 정상 간 환담 시에도 이러한 공감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6월에는 핵잠·원자력 관련 합의 이행을 위해 1차 실무 협의를 가졌으며 후속 협의를 위해 미 측과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추어 동맹을 보다 호혜적·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고 전작권 전환, 확장억제 협력 등과 관련하여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간 호혜적 경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3500억 불 대미 투자 및 관세·비관세 분야의 합의사항 이행을 포함하여 경제·통상 분야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대미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미 행정부는 물론 미 의회, 학계,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실시하여 미 중간선거 동향 등도 예의 주시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중 관계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한중 양국은 역대 최단기간 내에 상호 국빈 방문을 완성한 데 이어 국무총리의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과 오늘 오후 방한하는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 등 고위급 교류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호한 흐름을 바탕으로 선진 APEC 계기에 우리 정상의 방중 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 성과를 풍성하게 발전시키고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공고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석사자상 기증식을 개최하는 등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화하고 자이언트 판다를 도입하며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중국 내 사적지 관리와 보존 강화 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외교적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서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 수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포함해서 또 한편으로는 민감한 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4쪽, 한일 관계입니다.

지난해 8월 대통령께서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방문하셔서 서틀외교를 복원하고 특히 양국 정상께서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며 유대와 신뢰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외교 안보 및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의 폭이 확대되고 있고 특히 경제안보, 과학기술, 저출산 및 고령화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도 조세이 탄광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에 협력하는 등 인도적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과거사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을 진전시켜서 선순환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자료 5쪽, 한러 관계입니다.

정부는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하며 우리 국민과 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북러 군사 협력 지속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전달하고 중단을 촉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가운데 학술·문화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계속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6쪽입니다.

정부는 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CSP 비전을 토대로 한·아세안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 10월 아세안 및 APEC 정상회의 계기에 6개의 아세안 국가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올해에도 싱가포르·필리핀·베트남 국민 방문들을 성사시켰습니다.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한·태국 CEPA 협상 타결 및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 개정·개선 추진 등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세안 국가들과 디지털·AI, 방산, 인프라, 원전, 문화·창조 사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인도와의 관계도 올해 정상회담에 이어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실행하면서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했으며 핵심광물 부국인 이 3개국과 안정적인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 국가인 브라질과 외교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 외교 본격화를 위한 기반도 만들었습니다.

8쪽입니다.

외교부는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중동전 발발 이후에 우리 국민 안전과 선박의 무사 통항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외교부는 중동 지역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파트너 국가들과 맞춤형 협력을 통해 호혜적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6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정부 출범 1년을 맞는 시점에 실용외교에 바탕을 둔 대아프리카 외교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자료 11쪽,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국제 평화, 안보, 거버넌스 또 인권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제주포럼 계기에 유엔 사무총장 후보자 초청 대담을 개최하여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 논의에 건설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2025~2027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 분야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고 평화와 신기술, 기후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7월 NATO 정상회의 참석 시에는 세계 최대 방산시장 진출과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한·NATO 조달기본협정 협상을 개시하고 또 이를 통해 후속 조치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통합적·효과적 ODA 추진입니다.

각 지역에서 정상외교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무상원조 사업을 발굴하고 AI, 문화, 농촌개발 등 우리의 강점과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우리 외교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협력국 국민과 우리 국민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혁신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분절화되어 있던 무상원조 예산 및 사업의 통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외교부는 이미 2026년 대비 2027년 시행기관의 11%를 감축하고 사업 수 33%를 감축하는 등 사업 정비와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5쪽 K-이니셔티브 실현입니다.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맞춤형·융복합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공공외교 대상을 다변화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지자체, 재외동포, 전문가 그룹 등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16쪽 재외공관 재창조입니다.

현재 K-이니셔티브 확산 교두보로서 재외공관 역할을 재창조하는 일을 본격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재외공간에 팀코리아 체제를 완비한 결과 해외 진출 공공기관과 협업뿐 아니라 기업 진출 활동도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물리적 일원화도 지속하여 비용은 줄이면서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공관장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외교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17쪽, 경제안보 강화 및 우리 기업 수출 지원입니다.

중동전쟁발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차원에서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 또 중장기로는 에너지 도입 다변화를 위한 협력 대상국 맞춤형 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 사할린-2 LNG 수입을 EU로부터 제재 면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 또 AI 전 주기 공급망 협력 플랫폼인 팩스실리카(Pax Silica) 등 경제안보 협력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방산, 건설, 에너지·자원, AI 등 주요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정보 제공, 네트워킹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K-푸드, K-뷰티 등 유망 분야에 대해서 관계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지원 전진기지 역할을 재외공관이 담당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다자경제협의체 참여입니다.

금년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현안 대응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 AI·에너지 등 우리의 관심사를 최종 성과물에 반영하고자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PEC이 역내 새로운 경제 흐름을 반영하도록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2쪽입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간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와 공조 의지가 확인된 만큼 북한의 대화 협상 복귀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중러와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 건설적 역할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는 가운데 북한 핵 능력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는 한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유기적 또 병렬적으로 함께 진전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25쪽, 재외국민 보호와 편익 증진 외교입니다.

외교부는 해외 출국자 3000만 명 시대에 이르러서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후 육로와 항공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국민 약 1500명의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에 힘입어 캄보디아에서 스캠범죄에 연루되어 감금 및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수가 1년 만에 약 94% 감소하였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여 대상국 확대와 참여자의 연령 상한 상향을 통해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여권민원센터 추가 개소 등을 통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석준 외교부장관님 상세한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송석준 예, 김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건 위원 위원장님, 오늘 첫 보고라서 전체 업무를 다 보고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오늘 왕이 외교부장 회담을 위해서 외교장관이 빨리 이석하고 하셔야 되니까 다른 부처 보고들은 좀 짧게, 한 10분 이내로 다 끝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통일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업무현황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교 현안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많이 상세히 들으셨지만 통일부 관련한 현안은 추후에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가급적 짧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짧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통일부는 폐허가 된 남북관계를 다시 세우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초를 닦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남북 간 대화의 문은 아직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통일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두드리면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길을 개척해 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통일 분야의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궁극적 통일에 대해 정부에 대한 질책·비판과 함께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남중 차관입니다.

구병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종주 통일정책실장입니다.

홍진석 평화교류실장입니다.

소봉석 남북회담본부장입니다.

언론에서 남북 문제를 30년 넘게 다뤄 온 전문가를 삼고초려 끝에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으로 영입한 이제훈 원장입니다.

윤민호 대변인입니다.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한반도평화경청단장으로 청년 평화운동을 해 온 김효주 씨를 초빙했습니다. 김효주 단장입니다.

남북립 정세분석국장입니다.

강연서 사회문화협력국장입니다.

김상국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입니다.

최용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장입니다.

정소운 북한인권기록센터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짧게 결산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면 3페이지,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인데요. 총수입액은 219억, 지출액은 2258억입니다.

그다음에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도 세출현액은 총 3321억, 일반예산 2300억과 협력기금 전출금 1000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사업별 결산 내역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738억, 통일교육 229억, 정세분석 174억, 인도적 문제 해결 132억 등으로 집행됐습니다.

12페이지,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공정 지연으로 인한 이월액 51억이 발생했고 협력기금 전출금 미배정액 212억 등 416억이 불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협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협력기금은 총 7449억 원을 조성해 사회문화교류지원 등 사업비에 165억, 기금운영비 26억, 경수로사업 관련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5166억, 여유자금으로 2092억 원을 운용했습니다.

25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의견 경청해서 앞으로 관련 및 결산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공존을 위해 당면해서 통일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 추진과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내 동향입니다.

1쪽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9차 당대회를 통해서 장기 집권 구조를 공고화하는 한편 최근에는 군과 경제 중심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행보와 함께 군사 리더십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입니다.

대외 동향입니다.

중국과는 시 주석 방북을 계기로 전략관계로 격상했고 긴밀한 관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러시아와는 계기마다 상호 방문·협의를 통해 전략적 일체감을 과시 중입니다. 미국에는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도 관망과 탐색 기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해서는 적대국 관계를 재확인하고 거리두기 기조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핵잠 추진,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해 비난했지만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북한은 내부적으로 9기 당대회 과업의 첫째 성과 달성과 내부 결속에 집중하고 대외적으로는 중러와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면서도 향후 북미 대화 등에 대비한 협상입지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평화공존 발전 구상입니다.

통일부는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제시한 평화공존의 3대 청사진을 이행해 가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적대성을 제거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긴장과 갈등의 통제, 위기와 확산 방지를 통한 안정적 평화공존 그리고 동북아 평화와 핵 없는 세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으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국익에 부합하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3대 청사진 이행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4쪽, 평화교류 생태계 복원입니다.

우리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과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그리고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GTI(두만강 이니셔티브) 연계 협력의 4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평화 선도 구상을 구체화해 가겠습니다.

민간교류 재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면서 아시안게임 등 예정된 주요 계기에 민간단체, 해외동포, 국제기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교류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금법 시행령을 고쳐서 교류협력 관련 준비 활동, 북한 참여 유도 국제 네트워크 구축, 접경지역 지원 등 용도를 구체화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접경지역의 평화-경제 선순환 구축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단돼 온 경원선 우리 측 구간 복원을 재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 평화, 생태관광 접근성을 개선해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륙철도 연결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영토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변모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평화적 이용 제도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과 함께 DMZ 평화의 길, DMZ 평화이음 열차 등 국민들이 평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내년까지 네 군데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구체적인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쪽, 인도적 문제 해결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 등에 대한 다양한 위로행사는 물론 기록·보존사업도 계속해 가겠습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관련해서는 실질적 증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단계적 협력을 모색하겠습니다.

7쪽, 북한민 정착지원 체계입니다.

자율과 개방 중심으로 하나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말씀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기초 정착 교육을 안정으로 통합하고 화천 하나원의 기능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 대비 1.7배에 달하는 북한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북한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관리하고 상시적으로 연락하는 체계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한민 관련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함께 교육과 취업 지원을 강화해서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8쪽,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확대입니다.

안보 중심 통일교육에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특히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미 4000여 명을 교육위원으로 위촉했고 올해 안에 6000여 명을 추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숙의 토론을 통해 교육 방향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교육원의 핵심인 교수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임교수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9쪽, 2030 청년 주권 실현입니다.

통일부는 경청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청년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화경청 ON 캠퍼스 등 직접 청년들을 찾아가 의견을 듣는 것은 물론 AI를 활용해 시민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북한자료 활용입니다.

북한자료 활용을 비공개와 제한에서 공개와 이해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료법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내년 초 개원하는 동북아평화자료원을 국내외 연구자가 찾는 세계적인 평화 아카이브로 구축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실현을 위해서 여야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석준 통일부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업무현황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핵심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박용승입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서 범국민적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평화통일정책을 대통령께 자문·건의하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저와 사무처 전 직원은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길에 있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중심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무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학민 사무차장입니다.

김종진 자문건의국장입니다.

송순철 위원지원국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결산 개요를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8쪽의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1300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57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97.4%인 348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24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법정위원회, 국내외 지역회의 등 자문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38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년·여성위원 역량 지원, 지역통일준비 역량 강화 등 자문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22억 3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비 및 공무원 인건비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130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평화통일포럼,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등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을 위한 사업에 61억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밖에 사무처 공무원 인건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으로 총 95억 8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5년도 결산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9쪽, 제22기 지역회의 개최입니다.

국내에는 각 지역회의별로 9월, 10월에 국내 전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지역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외는 유라시아 지역과 미주 지역으로 나누어 2회 개최하며 지난 6월에 유라시아 지역회의를 개최하였고 1458명의 유라시아 지역 자문위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9월에는 미국, 캐나다, 중남미 지역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미주 지역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정책 건의입니다.

운영규정 제·개정 등 민주평통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하며 2월·4월·7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분과위원회의 활동 방향 등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는 전체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12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10개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분과별 평화통일 의제 개발과 정책건의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분기별 정책

건의와 함께 국제정세 변화 등 주요 계기별 수시 정책 건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장 송석준 처장님, 지금 업무보고 중이신데 위원님들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깐요 남은 내용은 좀 더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해서 마무리해 주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예, 알겠습니다.

평화통일 여론수렴 다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자문위원의 평화통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협의회 활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 소통과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입니다.

평화통일포럼과 평화통일 시민교실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지역 평화통일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평화통일 공감대 사업도 함께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통일골든벨 지역대회와 재외동포 청소년을 국내로 초청하는 청소년 평화통일 어드벤처 사업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역공동체 참여와 성공 정착을 건인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자문위원 연수는 부의장·협의회장, 지회장·간사 등 대상별 그리고 시·도 지역별로 실시하여 정책 건의 및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성·청년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동호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해외 자문위원의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강연회를 10회 추진하였습니다.

국내외 패널리 참여하는 평화통일포럼은 미국, 중국, 일본에서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평화통일 공공외교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외 자문위원의 평화통일 공공외교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방용승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협 재외동포청장님 나오셔서 재외동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 업무현황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장 김정협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 후반기 외통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재외동포청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외동포청이 올바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외동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철 차장입니다.

이기성 동포정책국장입니다.

곽삼주 교류협력국장 겸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결산 제안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재외동포청 결산 개관입니다.

재외동포청의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 세입 수납액은 15억 5300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0억 2600만 원 대비 151.3% 초과 수납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출연금 반납 등이 수입으로 계상된 데 있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78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94.7%인 1021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95억, 기관 운영 기본경비 53억 그리고 사업비 874억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예산변동 내역입니다.

일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용역 계약 등이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이월액 29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인건비의 정·현원 차이 및 사업 집행잔액 등 27억 8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무결산 내역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결산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비전은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 실현이며 2대 목표는 온전한 재외국민 주권 행사와 편리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국익에 기여하는 동포 역량 극대화입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은 5대 역점과제와 4대 국가정상화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역점과제입니다.

역점과제 중 첫 번째는 하나로 연결하는 소통 창구입니다.

전 세계 동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플랫폼 구축을 27년 내 완료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민원, 쌍방향 소통, 동포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하여 일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포단체의 자율적 동포 DB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이를 정부 관리 동포 DB와 연계·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재외국민 간편인증서 활용 확대,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도입을 통해 재외국민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역점과제는 동포 역량의 국가 자산화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세계한주간 계기 통합 세계한인대회를 신설·개최하여 한인사회 결집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포들이 현지 실정에 맞게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별·국가별 한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여 현지 한인의 결속을 도모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역점과제는 재외국민 주권 행사 보장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 주권 행사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책무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포청은 사회적 공감대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시 협의를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개특위 등 국회를 대상으로 60여 차례 면담을 시행한 결과 우편·전자투표 도입이 정개특위에서 의제로 논의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향후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요건 완화 및 재외선거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확대,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역점과제는 차세대 한인 정체성 확립입니다.

차세대 동포의 육성을 위해 먼저 한글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글학교 운영비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교재 및 자료 지원 강화, 표준 교육과정 도입, 교사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역점과제는 귀환동포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귀환동포의 안정적 정주 지원을 위해 국내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및 동포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국내 정착 희망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취업 지원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귀환동포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재외동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4대 국가정상화 과제입니다.

국가정상화 과제 중 첫 번째는 입양동포 지원 강화, 두 번째는 국적 제도개선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취지를 반영한 영주귀국·정착 사업 확대 추진 그리고 네 번째는 베트남 귀환여성 및 자녀의 현지 정착 지원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포청 소관 법률 제·개정 현황인데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석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의 결산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아프리카재단, 재외동포협력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된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포해 드린 25년도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요약 검토보고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 4페이지입니다.

외교부는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을 근거로 여러 센터·팀을 운영하는 등 직제를 우회한 조직 운영 관행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원을 확보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입니다.

한-인도양 협력기금 등 2025년도 신규 편성 분담금과 관련하여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분담금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분기별 집행 소요에 맞추어 분담금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입니다.

25년 APEC 의장국 사업의 경우 만찬장 선정 후 행사 규모 확대 등의 사유로 80억 원의 예산이 본래의 만찬장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동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립외교원입니다.

국립외교원은 글로벌리더십 장기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약 2억여 원의 교육비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향후 수입대체경비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KOICA 사업입니다.

KOICA는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운영 전반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에 장기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입찰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18페이지 국제교류재단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의 KF글로벌 챌린저 사업은 3년간 파견자 중 북미·유럽 파견이 97.4%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일본 등을 신규 협력처로 적극 발굴·연계하여 파견 권역

을 균형 있게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재외동포청 소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은 설계공모 유찰 등으로 설계용역 착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인 역사박물관의 사업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송석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연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광석 전문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자료 5페이지 예방 중심 부정수급 관리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에 국고보조금 횡령 사실을 자체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에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는바 향후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쪽 종료된 위원회에 대한 사후평가 제도화 필요입니다.

2년여 동안 존속하다 2025년 8월에 활동을 종료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종합보고서 등의 자료가 마련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국가예산으로 운영된 위원회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후평가와 한계 등을 정리한 종합결과보고서를 통하여 후속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감독 관련입니다.

전후남북자가족단체는 피해자의 의료비와 생계비 등 직접지원비로 편성된 금액 중 45%가량을 단체의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등 운영경비로 전환하여 집행하였는바 향후 통일부는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6쪽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의 실질화 관련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감소 추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후지원형 제도 확대,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전환, 자립계획 이행과 연계한 성과형 지원제도 도입 등 실질적인 정착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자료 23쪽 민주평통의 예산심의회 운영 관련입니다.

민주평통사무처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예산집행심의회를 통하여 예산집행, 회계처리의 주요 방침,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주요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집행심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송석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그럴까요? 박충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충권 위원 박충권 위원입니다.

외교부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외교 천재라고 치켜세우고 또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SNS에 ‘한미동맹은 단단하고 영원하다’ 이런 자화자찬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한미동맹과 대미 외교에 있어서 연일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러블의 이면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한 가지 이유가 이곳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러니까 일명 국민 입틀막 법이라고 불리는 그 법이 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까지 나서서 표현의 자유 위협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법이 한미 관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이것을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외교적 마찰의 불을 끄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미 하원 법사위에서……

○홍기원 위원 자료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준형 위원 현안질의입니까?

○박충권 위원 들어 보십시오.

○위원장 송석준 들어 보시지요.

○홍기원 위원 아니, 지금 자료요구가 아니잖아요.

○박충권 위원 미 하원 법사위에서 쿠팡 관련 실무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외교부가 반박 입장문을 냈는데 그 안에는 한국 디지털 규제 입법에 대한 해명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이 입장문 원문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외교부가 끝까지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검증 권한을 거부할 명분도, 어떠한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해당 원문의 즉각 제출을 외교부에 촉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통일부에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북향민 용어 변경 관련해서 통일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용역업체에 탈북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경위를 본 질의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석준 박충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관계기관에서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 중 서면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소위원회 심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오늘 전체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2025회계연도 결산과 보고받은 업무현황 등 소관 부처 및 기관의 현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 5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기관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질의시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과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외교·통일부 등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치하드립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북미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하는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과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고 더불어 향후 북미 관계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이것은 새로운 국면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 측에 저희들의 그러한 입장을 전달했고 아직은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미북 간의 접촉 현황에 관해서도 일단 문의를 해 둔 그런 상황입니다.

○김준환 위원 더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 등 다양한, 중요한 국제 이벤트가 있는데 한반도 문제, 특히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하신 종전협상의 의제화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9월 미중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왕이 부장과의 회담을 통해서 저는 중국 측의 입장을 좀 많이 들어볼 생각입니다. 미국 측으로서도 지금까지는 우리와 대부분 공감하고 또 설명도 해 주고 그러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방향성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환 위원 그러면 종전 협상을 국제사회에서 의제화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외교부가 갖고 있는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은 그것이 남북관계의 중요한 돌파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진해야 할 아주 중요한, 높은 우선순위의 항목입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이제 막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 전달로 인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고 진전이 있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외교원 해킹과 관련해서요. 장관님,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침입 경로하고 최초 취약점 노출 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됐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일부 확인이 됐고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은 이게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최선의 대비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초에 문제가 된 것은 2022년에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원격교육을 해야 하니까 국립외교원에서 해외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직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계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축 당시에 좀 소홀하게, 회사가 잘못 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방화벽을 열어 놓았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 보고를 받고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준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다음으로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조현 외교부장관님, 아까 그 말씀에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그다음에 ‘21일 자로 한미연합훈련 끝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 미 정부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그것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맞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여기서 외교부는 한미연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상관을 안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지 않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모니터링 정도가 아니고 한미 당국자 간의 협의에 외교 당국이 거의 다 참여하고 협의회에 준비도 함께해 왔습니다.

○고동진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방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국방부에서 전해 들은 게 없고 마치 외교부는 이렇게 빠져 있는 듯한 아까 말씀에서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고동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여기 지난 17일부터 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장관한테 지시했고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미국 내부에서도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이라든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도 전부 다 우려를 표현한 바가 있어요.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고동진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대통령령으로 외교부하고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제3항의 5호를 보면 한·미 상호방위조약 시행 및 주한 미국 군대를 포함한 한·미 간 안보협력에 관한 사항은 저는 북미국장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고동진 위원** 그러면 이게 그전부터 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정부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대통령도 그런 것을 소셜에다 올리고 이러면서 그러면 외교부에서 이런 것을 사전에 전혀 감지를 못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는 그 트루스 소셜이 나오기 전에 감지한 바가 없고요.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거의 주기적으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여러 관계관들이 우리의 희망사, 즉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미국의 국무부는 물론이고 미국의 안보실과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와 공유된 바는 전혀 없었고……

○**고동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각도로 설득도 하고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부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이런 발표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저희들의 노력의 결과로 나왔다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했으나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외교부장관 조현**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결정이 미국 정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고동진 위원**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언론 보도된 것 보면 북한 의식해 가지고 한미연합훈련 축소하겠다고 그것을 흘리고 결국 오늘 그런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한국·미국·북한 상호 외교 모양새가 대한민국은 배제된 채 미국·북한 측 간의 대화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많은 언론이라든가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고동진 위원** 나는 아까 뉘앙스를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 선에서 또는 고위급에서 북미 대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그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러한 결정을 자기 메시지로 발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고동진 위원** 저는 뭔가 대한민국이 이른바 패싱 당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간 관계상……

이게 이러한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독재체제는 더 공고해지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추가적인 질의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따가 또 한번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의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불안을 느낄 것 같은데, 장관님 의견 짧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여러 가지 국정에 있어서 이런 의사결정 또 그런 의사결정을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한국 정부는, 저희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미국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대처를 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다음은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정치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외교·통상 분야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대미투자,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시작전권 환수, 핵잠수함 사업 추진, 공여지 반환, 이 모든 게 다 단절되어 있지 않고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미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 약속한 대미투자 규모 가운데 진전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3500억 불 대미투자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이것을 어떤 프로젝트로 할 것인가는 미측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는 이 사업의 합리성……

○맹성규 위원 그러니까 대응 전략을 갖고 계시느냐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물론입니다.

○맹성규 위원 11월에 어차피 재네들이 선거를 앞두고 더욱 압박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장관이 미국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맹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한미훈련 축소도 그 연장선상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문제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맹성규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장관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연합훈련 축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작권 환수하고도 연계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핵잠수함 사업 추진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임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했어요.

전작권 전환은 결국에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그리고 우리 군의 군사능력 이런 것이 다 연계되어 있고 연합훈련을 통해서 검증은 받아야 될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합훈련의 축소가 전작권 전환 일정 검증 과정에 차질이 없을까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연합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검증 사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미 한미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축소하는 것은 사실 미측의 요청에 따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 이전에 관해서 이것을 이유로 더 전작권 이전을 늦추거나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맹성규 위원 단순한 군사 사안이 아니고 외교·안보 현안인 만큼 국방부와 충분히 정보 교류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맹성규 위원 핵잠도 마찬가지인데요. 연합훈련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의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한미 간에 안보협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견해가 어떠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저희는 자강, 즉 우리의 대응 능력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는 동맹을 강화시킴으로써 그것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맹성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확실하게 추진을 하실 로드맵이 있냐 그 말씀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맹성규 위원 마지막으로 군 공여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 군 공항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의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고 유사시에 미 본토 및 주일미군 전력이 전개되는 곳인데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서 지난 10일 군은 28년까지 광주공항을 다른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외교부에서도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 각도에서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빠르게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미국과는 다양한 쟁점과 현안이 있는데, 물론 외교부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되는 국방부를 비롯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조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트럼프가 지금 얘기 나온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발표하고 또 어저께 브런슨 사령관이 국방부와 접촉을 해서 바로 축소가 됐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사전에 전혀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도 트럼프의 SNS를 보고 처음 안 건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미국 정부 여러 기관의 책임자들과 같이……

○권영세 위원 그런 것 빼고 어쨌든 우리도, 미국 사람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SNS 보고 처음 알았다 이 말씀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렇지요?

장관님 입장은 아까 얘기하는 게 보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걱정이 돼서 이럴까 저럴까 추적도 해 봤다는 얘기를 하시다가 어떤 면에서는 좀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장관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남북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위원 남북관계는 그렇지만 우리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안보 문제는 저희 국방부와 미국 전쟁부 간에 또 저희 외교부와 국무부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 왔고……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간 게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권영세 위원 뭐라고 나갔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이런 새로운 조치를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환영한다는 취지로 나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란 문제에 대해서 돕지 않아서 일종의 퍼니시먼트로 했다는 것도, 외국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찬성하고 환영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미측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권영세 위원 연계됐는지 여부, 된 걸로 생각하시는지 여부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도 질문드릴 테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저희들이 이란의 대응방안에 관해서 온갖 협력 방안을 미측과 함께 협의해 왔고 우리의 입장도 밝혔기 때문에……

○권영세 위원 아니라고 보신다 이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정확한 것을 지금 미측과 실무선에서……

○권영세 위원 아닌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 이 얘기시네요.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정확하게……

○권영세 위원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여기서 외교적인 수사 얘기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하실 때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SNS에서 리슨틀리(recently) 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답은 노 땡스(No thanks)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리슨틀리를 언제 어느 통로로 받은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이 미측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무부와 또 NSC에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세 위원 아니, 트럼프가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노 땡스라고 답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요청받은 게 있는데 그 받은 것을 지금 NSC하고 미국 국무부에 확인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받은 것 어디서 받았는지 그것 당연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게 없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거기에 대해서 동맹국의 대통령이 한 얘기의 사실관계 확인을 저희들이 하기보다는 미측과 여기에 문의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SNS 관련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정부가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도움의 요청을 받은 것이 최근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가장 최근 것?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행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자,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군함을 보내 달라든지 아니면 병참 쪽으로 지원해 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건 없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양국의 상호 기관 간에 협의해 나가자고 되어 있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그게 마지막으로 받은 게 언제였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권영세 위원 나중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우원식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역시 저도 같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외교 참사, 코리아 패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당이 정부 대응에 대해서 점검하고 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정상이 어떤 배경과 판단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 나라의 안에서도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런저런 혼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 정상이 말하는 것의 근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 외교부장관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한미 간에 그 이후에 어떤 소통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 이후에 어떤 소

통이 있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즉각적으로 저희들은 주미대사관에서 관계기관과 이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대책도 함께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한 서울에서도 주한대사를 초치해서 이에 관해 협의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예기치 않게 미국 정책을 발표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다른 EU국가들이 어떻게 했는가 또 다른 동맹국들이 어떻게 했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즉 개관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하고 또 어떤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래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 심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 왔습니다. 이번에도 미 국방부에서 처음에는 발표할 변경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이후에 지시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미국 언론에서는 미 국방부조차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했다 이런 보도를 저희들이 접하면서 역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한 이유가 뭘가에 대해서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경색되어 있는 국면이고 저도 국제 무대에 나가서 북쪽 사람들도 만나기도 했고 지난번 전승절에 가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악수도 나눴습니다만 정말 냉랭하고 또 남북관계가 얼마나 극적으로 단절되어 있는지를 느끼는 현장들이었는데 사실 지난번에 남북관계가 잘 가다가 하노이회담에서 노딜이 되면서 북미 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그런 속에서 남북관계도 아주 경색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하노이에서 노딜 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북미관계가 해소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평화의 물결이 생겨나기 시작해야 남북관계도 풀어 나간다고 하는 우리의 특수성, 그런 조건에서 보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서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런 방향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 어찌면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도 가져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 예를 들어 이란 관련해서 한국을 좀 압박하려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은 또 그것대로 한미 간에 잘 협의를 해 나가고 지금 북미 간의 새로운 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메시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원식 위원** 한미 양국의 확고한 방위연합 태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안보를 공고히 다져 나가야 될지는 양국이 같이 협력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그런 일을 해 나가는 데 차질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차질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방부와 미국 당국자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훈련의 축소가 우리 전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인 보완책들

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다음은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건 위원 김건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지난번에 쿠광 사태가 났을 때 우리 외교부의 대변인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노력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답을 제가 보면서 이것 참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라는 것은 미국의 동맹국들한테는 아주 큰 과제입니다. 큰 문제고 상대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한데 그것을 그런 상황에서 대미외교를 한다는 게 난도가 엄청 높지요. 엄청 높는데 우리한테는 국민들의 안전과 우리의 번영이 다 걸린 문제라서 다른 어떤 나라가 못하더라도 우리는 행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국민의 기대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문제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저는 사실 오늘 장관님의 답변에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루스 소셜 보고 알았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미국 쪽 현황은 지금 문의해 둔 상황이다, 이런 지원 요청에 대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미 측에 물어 봤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어려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우리 대미외교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이번 연합훈련의 가장 큰 의미는 제가 아는 한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돼서 드론 전쟁의 현대전, 그러니까 미래전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미연합 전력으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중요한 훈련이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나 그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즉흥적으로 있는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해서, 그런데 장관님의 반응은 이렇게 돼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고 다른 나라도 똑같이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이런 것은 국민들을 심히 불안하게 만드는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보다는 우리 외교부 그다음에 대미외교가 지금보다 훨씬 잘해야 되겠다. 다른 나라가 못 하는 것을 해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페이스메이커라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메이커라고 했더니 페이스는 전혀 만드는 게 없고 그냥 미국이 바라는 것만 패싱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이해했을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페이스메이커라는 건 뭐냐하면 앞에서는 미국하고 북한이 뛰어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 조절을 다 하는 거다. 당연히 미국 간의 어떤 협의나 그런 것도 우리의 국익을 전혀 손상할 가능성이 없이 우리가 잘 해 나갈 거다 이런 다짐을 국민한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얘기한 것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문의해 봤다는 것 이외에 다른 대응은 없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민들

로서는 엄청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지금 대미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입장을 가진 미국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도 주한미군 철군하겠다고 캠페인에 서 얘기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미국 내의 노력하고 우리의 외교적 노력 다 합쳐 가지고 결국은 한미동맹을 잘 지켜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교부에서 대미외교를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는 매우 정직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부터 잘 해야 된다, 특히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데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항상 있었던 소통채널을 전부 가동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패싱당하거나 또는 뒤에서 그냥 바라만 보는 일이 없도록 또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메시지가 나온 것에 관해서 제가 마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었다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는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솔직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석준 장관님, 지금 긴밀하게 소통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군사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주미한국대사 또는 주한미대사와 어떤 식의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하기로 했고 우선 주한미 사령관이 전쟁부의 훈령을 받아서 우리 국방부와 1차적 협의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석준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한미대사와 언제 어떤 식으로 소통을 좀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외교부에서 공사 전부 했고 대사वाद 당일 오후에 접촉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장관님이 직접 접촉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누가 접촉을 했는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송석준 그리고 또 주미한국대사로부터도 어떤 관련된 논의 또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여러 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나중에 그 사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장 송석준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연습 대폭 축소를 밝힌 지 4일 만에 UFS 연습 일정도 조기종료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전 한국의 군사적 요구와 대미투자의 압박이라는 하나의 분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보도된 것처럼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섭이 깔린 게 아닌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인터뷰한 것을 들어 보면 김정은과의 관계는 상당히 신뢰가 두텁고 내가 하고 있는 일—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마 여기서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했다는 지침—여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든다, 이 둘의 관계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만약에 후자일 경우에는 한미관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등장하지 않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 전자와 후자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압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동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예를 들어 투자 문제도 상업적 합리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거치고 우리의 업적 절차를 다 거쳐서 하다 보니까 빠르게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한미 간의 투자와 별도로. 그런 것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 보내는 것의 동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것은 뭐냐? 사실 미북 간에 싱가포르, 2018년에 있을 때……

○김영호 위원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때 이미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비싼 훈련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정말 만나려면,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는 김정은이 절대 나오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정부도 지금 김정은, 북한 측과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응답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위해서 한반도의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조기 마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무대에 끌어들이고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데 한반도에서 전쟁 연습을 잠시 중단하자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일이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다만 군사훈련의 목표가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해서 실지로 실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걸 잠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전제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런 메시지가 내려지면 굉장히 안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고요.

지금 아마도 야당 의원님들과 보수 언론에서는 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패싱할 거냐 안 당할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피스메이커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일단은 북미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측에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우리가 꼭 거기의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국제무대에 김정은 위원장을 데리고 나오고 우리 정부와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우리가 패싱이 되냐 안 되냐는, 정말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좋은 환경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뒷받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이번에 이런 새로운 환경의 변화는 그것을 우리 국익에 맞도록 저희들이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을 잘 참조해서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다음은 존경하는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외교부장관님, 저도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 준비했었는데.

사실 한미연합훈련은 논란이 되기는 되지만 또 어떤 분은 지금 현대전에서 사실 이렇게, 드론전을 얘기하시면서 한미연합 기동훈련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동원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현대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1년 내내 대대급이라든지 사이버라든지 이런 것을 훈련하고 있지요? 한미연합 훈련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준형 위원** 넘칠 만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자극하고 이런 대규모 전쟁 연습을 하고 부르는 것을 구태여 해야 되나? 사실 이 얘기는 3월 달에, 이미 이삼 월에 했고, 맞지 않습니까? 정동영 통일부장관님께서도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인풋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고위층이 가서 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꾸준히 미국한테 얘기를 해 왔고 비핵화도 목표로서, 지금이 아니라 목표로서 앞에 두지 않는다고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난 6월 G7에서, 예정에도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대북 접근을 하겠다고 얘기했고 사진이 올라간 건 그때부터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한국이,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싱이 아니라 사실상 빌드업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대체 불가의 한국이라고 정부도 주장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전 세계가 존경한다고 하는데 왜 미국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는 데 대해서, 정부는 그렇다 치고요. 저는 트럼프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 지적하는 여당 위원님도 많이 못 뵈고요. 야당 위원님들은 외교정책을 얘기하면서 정부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전에까지 단 한 번도, 한 차례도, 단 한 분도 트럼프의 이런 이상행동과 사실 동맹의 예의를 벗어나는 결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반기에도 그랬고요.

한번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 볼까요? 조지아에서 우리가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우리 공장의 준공을 도우려 갔던 우리 국민을 중범죄 취급했지요? 그때도 왜 그런 피해를 당하냐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미FTA가 존재하며 또 일방적인 통상 압박을 해도 미국을 비판한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적 관세를 하고 주권국의 지도부를 폭사시키고 유엔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전 세계 한 나라도 파병하지 않는데 우리가 미국한테 파병 얘기를 안 들어서 이 얘기를 듣는다고, 저는 이것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걸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왜 트럼프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얻어맞고 있느냐 이게……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존심이 걸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먼저 전제하고.

미국 내부의 국방부 인사들도 몰랐던 사실을 그런 방식으로 SNS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동맹의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그 얘기 하시고 수많은 논평 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고 국익을 생각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 하나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민의 뜻에서 뽑힌 국회의원은, 보십시오. 저것 최근의 조사입니다. 동아시아 연구원, 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보수적인 기관입니다. 한국의 응답자 중에 미국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국민의 저 정도가 반대하고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이 부분에서 점검하고 장관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 주셨습니다.

지금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사실 2021년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를 드론으로 너끈히 이겼던 건 그다음에 2022년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2026년 2월에 시작된 대이란 전쟁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면밀히 조사하면서, 지켜보면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과의 관계,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것은 제가 동맹국의 외교 수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다.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준형 위원 저는 항의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자리에서라도.

○외교부장관 조현 그와는 별도로 위원회에서든 예를 들어 조지아 사태 때라든지, 존경

하는 김준형 위원님께서 매우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다음은 박충권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아직 주질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오전 질의는 한동훈 위원님까지 하시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동훈 위원님 질의 후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박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 국민의힘 박충권 위원입니다.

오늘 한미동맹, 대미 외교를 비롯해서 현안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보고 전에, 현안을 보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국회의원이 되실 때 선서하셨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박 위원님 하신 것하고 똑같이 했지요.

○박충권 위원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도 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그리고 장관 되실 때도 선서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박충권 위원 ‘나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박충권 위원 이것도 어떻게 다, 국민 앞에서 한 선서들 지키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잘 지키고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박충권 위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최근에 취임 1주년 성과라고 하면서 두 국가론을 통일백서에 넣어 놓은 것을 자랑하셨는데 장관님, 이게 자랑입니까? 누구한테 자랑하신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한테 자랑하신 겁니까, 김정은한테 한 겁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정부가……

○박충권 위원 짧게 답하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박충권 위원 짧게 답하십시오.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정책이……

○박충권 위원 누구한테 한 겁니까? 국민입니까, 김정은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입니다. 그 두 국가의 국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가입니다.

○박충권 위원 좋습니다. 답변 못 하시겠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강 위원 하고 있는데 뭘……

○박충권 위원 그게 어렵게 답할 얘기입니까?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호칭은 북한입니까, 조선입니까? 대통령한테 조선이라고 부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통일부장관 정동영 평화공존을 하려면 상대방의 이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박충권 위원 그래서 북한입니까, 조선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입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잘 알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잘 알고 있지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헌법 취지에 맞습니까, 헌법 조항에?

대한민국 국가, 애국가의 후렴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삼천리 강산입니까? 이 헌법 조항 동의 안 하십니까, 장관님?

○통일부장관 정동영 왜 우리 헌법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게……

○박충권 위원 그런데 왜 두 국가를 주장하고 조선이라고 부르자고 합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 두 국가의 국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말하는 겁니다.

○박충권 위원 대한민국헌법 제4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장관님은 어떤 통일을 지향하십니까? 자유민주적 통일입니까, 적화통일입니까, 아니면 지향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헌헌법에는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한다고 돼 있던 것을 1972년 박정희 유신독재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명확하게 박았습니다. 그런데 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이 쟁취한 헌법에서 이것을 계승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래서 장관님이 하신 이 행위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맞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리고 최근에 통일은 폭력적이라고 하셨는데 통일부장관은 그러면 폭력부장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현 단계에서 흡수통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폭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제가……

○박충권 위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입니까? 북한 대변인입니까?

○김준환 위원 참 너무하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박충권 위원 ‘참 너무하네’가 아니라 지금 헌법을 부정하는, 대놓고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준환 위원** 제가 국정원에서 25년 이상 근무했어요.

○**박충권 위원** 국정원에서 일을 하셨으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에 한마디도 말을 못 하면 국회의원입니까, 그게?

○**김준환 위원** 그렇게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이……

○**박충권 위원** 장관의 이 모든 행위들, 반헌법 행위고 매국적인 영토 포기 선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김준환 위원** 이견 많아요.

○**박충권 위원** 의견 많습니까? 국회의원 선서 하셨지요?

○**이재강 위원** 어디다 질문하는 거야?

○**이기현 위원** 질문을 얻다 해?

○**박충권 위원** 북한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위협입니다.

○**박충권 위원** 위협입니까?

북한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김준환 위원** 그대가 김일성, 김정은 외칠 때 저분은 통일운동 했어요.

○**고동진 위원** 자, 위원 얘기할 때 좀 자제합시다.

○**박충권 위원** 이따가 얘기하십시오.

○**위원장 송석준** 위원님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진행 중입니다.

○**박충권 위원** 북한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재강 위원** 발언을 자중시켜야지요. 어찌……

○**이기현 위원** 위원장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가보안법상에서는 반국가단체지만……

○**박충권 위원** 북한은 우리를 불변의 주적, 제1의 적대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증강하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발사하고 그리고 감히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몇절을 운운하는데 북한을 향해서 주적이라고 말을 못 합니까? 주적이 혐오표현이에요?

○**김준환 위원** 그러는 위원님은 주적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그분이 주적을, 그러니까 계실 때 주적이 어디였어요? 남한 아니에요?

○**박충권 위원** 주적을 반대해서 왔어요.

○**위원장 송석준** 김준환 위원님.

○**김대식 위원** 김준환 위원님, 상대 위원님을 좀 존중하세요.

○**고동진 위원** 위원 얘기할 때 좀 자제합시다.

○**박충권 위원** 지금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 송석준** 질의를 중간에 방해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권 위원**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배할 경우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 부정하고 국가 수호 의무를 저버린 장관을 저는 대한민국 장관이라고 인정 못 하겠습니다.

조선 장관입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위원장 송석준 다음은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시간도 없는데 이 얘기를 또 한 번 다시 해야 되겠네요.

91년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이 있었습니다. 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그 합의서에서 남북합의서 상호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맞지요, 장관님?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이기현 위원 국제적 관행이나 역사적으로나 국호 불러 주기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국민의힘 위원 주장에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관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 사회적 논쟁과 관련돼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잘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일부 언론에서 통일부의 방침인 것처럼 보도가 됩니다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아까 말씀처럼 종교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지식인 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평화공존을 하려면 이름이라도 불러 줘라 하는 그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겠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지 통일부의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기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저도 청와대에 근무해 봤는데 정상 간에 통화가 이루어지면 끝나고 나서 PG는 각국의 안보 실무자들끼리 언론에 공개할 부분만 정리해서 공개하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공개하지 않을 부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이란전쟁 관련해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거절을 하셨다 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제적 정상 간의 통화나 아니면 만남에 있어서 비공개 부분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관례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관례는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주한미군이 처음에는 4만 8000명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이기현 위원 그게 다 한 얘기고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런데 이번에는 3만 8000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 콘텍스트에서 저희는 동맹국의 대통령의 그런……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장관님께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업무보고 때 통일부의 4자 회담 추진 제안에 대해서 이상론이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외교부가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자 회담에 미국과 중국이 들어가서 이게 외교부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정책과 회담체계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외교부가 더 현실적인 대한민국이 대화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협의체계, 회담체계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제안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내용은 없고 통일부의 4자 회담 제의에 대해서 이상론

이다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현 이후에 통일부장관께서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이상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제가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본의 아니게 이상한 언론의 비판도 있었고 그래서 유감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다만 4자 회담과 관련해서는……

○이기현 위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왕이 외교부장 만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보기에 한 6년 만, 5년 만에 한국을 방한하는 것인데 왕이 외교부장이 와서 1박 2일 동안 집중적으로 장관과 회담하시고 또 내일 대통령 예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11월 선전에 있을 APEC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왕이 외교부장과 그리고 조현 외교부장관께서 회담하시는 계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

물론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인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보도가 미국에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도 이것에 대해서 상황 파악과 그리고 현실적인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페이스메이커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오늘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장관님께 하나만 짧지만 묻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논평 보면 북한이 오늘 ‘자위적 권리권 행사가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번에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예전에도 하던 논평 강도일 텐데 저는 북한이 바로 대화와 협상, 미국과 만나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핵의 인정 아니면 경제제재라는 현실적 이익이 없이 저는 북미 대화에 다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나올 요인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한 성정하고도 또 표현 양식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스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향후에 통일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통일부에서는 북쪽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미정책과 관련해서 ‘헌법상의 주권적 지위와 그리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핵심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 지시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애기했던 ‘헌법상의 주권국가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협상 대상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미국과 저는 북미 접촉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조현 외교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한미연합훈련 축소 관련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7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배경에 우리 정부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약속 이행 지연 문제가 작용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달러 중 1500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되었으나 나머지 20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해당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 문제와 함께 우리 정부의 쿠광 규제 및 이란전·호르무즈해협 지원 거부 관련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조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대북 유화책이라는 평가도 상존합니다.

장관님, 우리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정부에 대한 몇 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대북 메시지도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이란전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특정한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메시지 나온 것을 계기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저는 우리 외교의 전략이자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한편 트럼프 대통령 SNS에 8월 17일, 다 아시지요?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노 땡큐’, 그들은 사양하겠다고 올렸지요, 아까 말씀했듯이?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고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요인을 감안해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칠까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 방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동안 영국,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가 있었고 또 미국이 요청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의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을 위한 선언적인 국제 노력에도 동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가 지금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또 속보에 의하면 트럼프가 김정은과 올가을 회동을 추진한다, 11월 APEC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언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이 정도 구애의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이따가 질문할 거지만 추가적으로 지난 7월 부산에서 개최된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보존현황보고서에 대한 후속 검토결과가 전원합의로 확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이재강 위원** 실제로 사도광산 등재 결정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서술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등재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실제로 2025년 12월 우리 외교부는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실무적으로 어떠한 논의를 이어 갔습니까?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들은 대일 협의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일본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방식보다는 좀 더 크게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 대일 압박수단으로 우리도 유사한 것을 얼마든지 유산 등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함으로써 일본 측의 변화를 유도해 왔고 어느 정도 지금 소기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역시 지금 현재로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강 위원** 사도광산 전체 역사가 일본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축소되거나 주변화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사도광산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전향적인 태도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다음은 정청래 위원님 질의시간입니다.

정청래 위원님은 법사위원회에 같이 계시면서 사실 편향된 의사진행으로 저를 많이 화나게 하고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켜 주셨지만 그래서 존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외통위원님으로서 이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정청래 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님, 2005년 6월 17일 기억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정청래 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날입니다. 본인도

아마 감격적이었을 텐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정동영 통일부장관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면서 왜 통미봉남 합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웃으면서 ‘좋다.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1시간 면담이 4시간 이상 계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정청래 위원 북한은 전통적으로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던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세기적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합의했었습니다. 키워드는 새로운 북미관계였습니다. 새로운 북미관계라고 쓰고 북미수교라고 읽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렇다면 어쩌면 다시 못 올 기회가, 기회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일부장관을 두 번째 역임하는 장관으로서 이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온갖 지혜를 다 짜내시길 바랍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평화의 여신이 한반도를 비껴가는, 어떻게 보면 불운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살아생전에 제가 동교동을 방문하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2000년 평양에 가서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미 대선이 잘 풀리면 클린턴이 평양에 가서,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에 가서 모택동과 회담했던 것과 같은 세계적인 회담, 세계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았었는데 엘 고어가 대선에서 패배함으로써 행운의, 평화의 여신이 우리 한반도를 비껴가는 것을 두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박복한 민족이고 천추의 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제가 가슴 깊이 그것을 새기고 있는데 지난번 하노이 노딜 때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늘에서도 땅을 쳤을 텐데 이번에 어쩌면 그런 기회를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주권 중에서 정보 주권, 정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운전자론으로 운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부장관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관계에 있어서 남북관계는 특수 관계고 또 국제연합에는 가입된 2개의 국가고 이렇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은 같은 사안을 말할 때도 워딩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은 그야말로 외교적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를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북한에 대해서 상호 인정하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국방부장관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안보 태세 그리고 튼튼한 국방의 관점에서 워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외교부장관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AI 혁명 시대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정말로 천복이다, 만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지식정보화사회, 인터넷 혁명을 일으켰다면 지금은 그것의 10배, 100배

에 해당되는 AI 혁명, 문명사적 대전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속도전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출시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선결 조건이 미국과 SOFA 협정상 거기에는 지금 미군기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능성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AI 혁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은 지난번 대통령께서 샌프란시스코 방문 시에 AI 협약을 발표하신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선결돼야 될 미 공군기지 문제는 저희들이 외교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미국과 SOFA 협상의 테두리 내에서 협의를 해 왔고 이를 좀 더 촉진시킴으로써 3대 메가 프로젝트 진행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청래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구포·덕천·만덕의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외교부장관님, 노고 많으신데요.

연합훈련이잖아요. 연합훈련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나온 ‘중단 지시하겠다. 축소 지시하겠다’ 그게 없었으면 그대로 진행됐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마 그랬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한동훈 위원 그랬겠지요? 그러면 연합훈련은 그냥 점심 약속한 게 아니라 두 주권 국가가 서로 간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데 미국에 항의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항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아니, 주권 국가가 기존의 약속을 이런 방식으로 변경받았는데 항의할 사안이 아니면……

다시, 그러면 항의라는 말이 싫으시면 이렇게 갑니다.

문제 제기하셨습니까, 왜 이러는 것인지?

○외교부장관 조현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위원 아니, 문제 제기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항의라는 말과 문제 제기라는 뜻이 좀 다른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저한테는 좀 다르게 들립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는 원래 당초에 이 훈련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약속한 것이니까’ 그런 뜻

을 미국에 전달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이미 미국 측에서 입장을 정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 장관님, 연합훈련이잖아요, 같이하는. 그러면 우리 측 입장은 그대로 하는 게 맞다라는 뜻을 전달했습니까? 그냥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응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요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의 문이 열리는 이런 기회에……

○**한동훈 위원** 그런데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린든 말든 어쨌든 이 군사훈련 자체는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경 설명도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에다 한 줄 적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주저앉아야 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어떤 것을 우리가 주저앉았는지 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루스 소셜 이전에 이것 모르셨다 그랬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 이것 몰랐던 것은 외교 실패 아닙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라 하더라도, 시험 문제 어려우면 빵점 맞고 당당해도 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현** 글썄, 그것 좀 표현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외교부장관님이나 저나 이 이슈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똑같은 수준 아니예요? 왜 그 이전에 이 많은 인원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글썄, 국무부는 우리의 10배가 넘는데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의 존재 이유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고 그리고 저런 움직임에 저런 발언이라든가 나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외교부의 임무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글썄,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이란 관련해서 어떤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물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그렇지요, 조금 전에 그런 요구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런데 저는 미국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요구를 받은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나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아니요, 협의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요.

호르무즈나 이란 관련해서 군사력 제공에 관련한 요구를 미국으로부터 대통령이 직접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트럼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 트럼프는 분명히 이란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보복적 조치로 이것을 하고 있다고 트루스 소셜에도 썼고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그것도 미 측과 협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그런 요구 자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여기까지 왔고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이 뭔가 알아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외교적으로 숨겨 두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나온 상황이니 이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외교부장관 조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미 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여기에 관한 입장……

○한동훈 위원 또 하나요.

그리고 자꾸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모든 것의 무슨 치트 키처럼 말씀하시는데 북미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북미 대화를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까지 양보하고 우리를 말로 쓰면서까지 할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북미 대화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런 훈련 안 해도 돼, 저는 이 입장이 대단히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모처럼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리면서 미국의 여러 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북미 대화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장관님, 2018년에는 이미 북미 대화가 정해진 다음에 군사훈련을 중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군사행동을 중지한다는 이 땀을 먼저 저쪽에 썼습니다. 이런 방향 가지고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국익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었고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를 해 오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을 그냥 저하고 똑같이 지켜보고만 계신 것 아닌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님이 어떤 자세로 지켜보는지 모르기 때

문에 저와 똑같은 입장에서 지켜본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 제 말씀은 어떤 방향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보의 수준이 지금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란과 관련한 얘기도 정보도 아는 바가 없으시고 실제로 보면 북미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지금 현재 파악한 바가 없으신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아는 것이 없다고 단정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석준**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한동훈 위원** 다른 분들에게 답변은 다 잘하시면서 이 부분은 왜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위원장님, 통일부장관으로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그래요.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미동맹 걱정이신데요. 한미동맹의 공통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더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서’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요인이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축소 지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일부로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전개되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4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석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차지호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충권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신상발언 좀 요청드립니다.

○**차지호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먼저 질의……

○**위원장 송석준** 잠깐만요, 차 위원님.

질의 전에 무슨,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박충권 위원** 신상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석준** 그러면 박충권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권 위원** 박충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금일 오전 질의 중에 있었던,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퇴장하던 중에 외부에 계시던 김준환 위원께서 회의장 내부로 다시 들어오던 과정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준환 위원께서 제 손을 잡으시길래 사실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좀 격했던 일이 있어서 양해말씀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김준환 위원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고 나는 국정원에서 25년간 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유공자시니까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김준환 위원께서 제 손을 놓고 가시면서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야. 조심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모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제 기억에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듣고 계셨던 기자님들 그리고 보좌진분들께서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많이 놀랐고요, 심지어 저는 협박받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업무를 담당했던,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하였던 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3만 4000명의 탈북민들은 김일성 일가의 독재와 그리고 정말 한 줄기 인권조차 허용되지 않는 그런 전체주의 체제를 단호히 거부하고 목숨 걸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탈북민들을 향해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야.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은 김 씨 일가의 독재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모든 탈북민들의 삶과 그 결단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모욕하는 언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탈북민 모욕에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2600만의 북한 주민들, 그분들의 한 줄기 희망마저 꺾어 버리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스스로 국가유공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어떻게, 탈북민을 모욕할 수 있는 면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온 탈북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주당 위원님들께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탈북민들이 여러 많은 모욕들을 당해 왔는데 그 대부분 모욕을 하신 인사들이 민주당 계열 인사님들이었다는 것이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과거 임수경 전 의원이지요. 탈북민을 향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배신자라고, 변절자라는 망언을 쏟아 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당대표 역시 과거 청화대 석사논문을 쓸 때 탈북민을 향해서 ‘반도자’라는,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당한 일이지요. 전반기 국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께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 원칙이 보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민주당 위원님으로부터 또다시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라는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북한 정권에는 끊임없이 정말 존경과 신뢰를 말하면서 어떻게 정작 탈북민들에게는 이렇게 모욕적인 망언을 하실 수 있는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석준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준환 위원님의 발언은 단순한 위원 간의 사적인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것도 통일을 다루는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장에서 탈북민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와 외통위 전체의 품격과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법 146조를 보면 이것은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김준환 위원님의 이 발언 경위를 분명히 확인해 주시고 합당한 사과와 해명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탈북민들,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북한 탈북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장관께서도 자리하고 계신데 ‘김일성 만세 하던 사람들’ 같은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도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위원장 송석준** 의사진행발언을 연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김대식 위원** 예,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그러면 같이 묶어서, 두 분 말씀을 묶어서 제가 김준환 위원님의 입장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김대식 간사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대식 위원** 야당 간사로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충권 위원님과 김준환 위원님하과의 두 분 대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저는 귀를 의심하고 이것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들 김일성 만세 하던 사람들이야’ 이 발언 자체는 상당히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해가 좀 다르더라도 북한 체제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동료 위원의 과거를 끌어들어서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환 위원님께서도 경위야 어떻게 됐든 간에 경위를 밝히고 박충권 위원께 정중히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외통위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언행에 각별히 유의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석준**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박충권 위원님은 그동안 여러 경우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동료 위원에게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는 많은 충격을 받은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김대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 되시는 김준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했거나 아니면 본의 아니게 하시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두 분 위원님께 납득이 가게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김준환 위원** 먼저 외교·통일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괜히 부주의한 언행으로 인해서 회의에 지장을 주고, 특히 동료 위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박 위원님 살아온 세상의 이념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깊이, 뻗속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저 개인적인 성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저는 부친이 국립묘지에 계시고 자식인 저 또한, 지금은 국가유공자라고 우대를 해 주지만 원호대상자라는 사회에서 좀 도와줘야 될 불우이웃으로 초등학교 다닐 때……

○위원장 송석준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겠어요?

○김준환 위원 그렇게 취급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하면서 어찌 됐든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안보 최일선인 국정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왔습니다.

북한민들이 대한민국에 오기까지의 고통감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주의적인 국가인 북한과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통일을 위해서 전에 통일부장관도 재직하시고 어떻게든 경색된 남북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는 박 위원님께 사실 들으면서 약간 이성을 잃고 감성적으로 격해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충권 위원이 북한에서 겪은 고통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된 탓인지 통일에 대한 논의를 제 느낌상으로는 너무 공격적이고 또 북한 체제에 대한 복수심에 가득 찬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박 위원께서 북한 땅에서 겪은 고통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통상 보면 좌파로 정의되는 민주당의 통일을 위한 어떤 노력조차도 폄하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저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은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한 듯합니다.

제 태도가 대단히 흥분했던 점을 깨끗이 인정하고요. 제가 내뱉었던, 가슴에 비수가 됐던 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외통위 회의에 방해를 끼친 점 또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면 국회에서 통일·안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그 성장배경이 어찌 됐든 좀 더 열린 자세로 임하고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 된 조국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박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석준 김준환 위원님, 어릴 때부터 원호대상자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셨답니다. 또 같은 심정으로 박충권 위원님도 탈북인으로서 많은 상처를 받아 온 입장에서 오늘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얹혀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서로 흔쾌히 사과해 주시고 또 받아들여 주셔서 원만히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민의의 전당 중에서도 가장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정말 모든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 동네 법사위에서는 오늘 오전에도 천둥·벼락이 쳤다고 합니다. 끝 간 데 없는 갈등과 대립,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 현장에서 후반기가 되고 나서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면, 이 자리에는 외교부장관님도 계시고 통일부장관님도 계십니다. 두 분은 또 외교 전선에서 우리 통일정책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과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서로 존중하면서 외교

통일위원회에서는 어떤 갈등도, 대립도 다 녹여서 더 밝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서로가 같이 지혜와 힘을 보태는 상생과 조화의 장이 바로 이곳 외교통일위원회다 이런 마음에 서로 공감을 하시면서 같이 잘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저도 두 분이 말씀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처해진 역사적 상황 안에서 결국 우리가 다투게 되거나 이런 말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복잡한 국제정치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내재화되고 우리 역사 속에서 각자가 가진 삶의 역사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지를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복잡한 국제질서를 안정시키고 남북의 끈질긴 역사적 갈등들을 해결하는 것들은 지금 여기 계시는 통일부장관님과 외교부장관님 두 분의 역할이고 또 부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통일부장관님께 먼저 여쭙보고 싶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든 이 역사적 소용돌이 안에서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경제·사회적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 남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양자외교의 가장 큰 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양자외교가 만들어 놓은 불확실성은 상대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이나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양자외교라는 것은 굉장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좋은 쪽으로도 그렇고 나쁜 쪽으로도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북미 회담에 대한 물꼬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오늘 왕이 부장이 한국으로 찾아와서 중국과 한국의 양자관계 안에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님께서도 입장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라고 하는 것은 다자 간의 관계나 양자관계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남북관계의 안정성으로 만들어 냈고 남북 평화의 물꼬로 만드는 목적지향적인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통일부장관님께서 북미 대화가 미국 주도로 불확실하게 시작되는 이 시기에 한반도가 상대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북한과 연결된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짧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남북 대화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 조건에서는 북미 접촉 대화가 되는 것이 물꼬를 트는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연습 중단, 축소 지시가 그런 물꼬를 트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근본 문제에 정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 문제는 7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정전 체제입니다. 한반도는 75년 전, 76년 전에 미국·중국·남북이 한데 엉켜서 싸웠던 전장터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지금 74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또 한미, 한중, 북중 이 4자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지호 위원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나고 그 이후에 큰 고통을 가졌던 것은 양자 관계에 만들어진 불안정성이 많이 큰 기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예전의 러시아 그리고 그 전의 관계에서 전쟁과 갈등의 소용돌이가 한반도에서 대리적으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남북 간의 관계는 남북이 만들었다기보다 그 이전에 조금 더 큰 다른 양자 관계의 한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다시금 이것을 넘어가려는 국제적인 노력은 다자주의인 것 같습니다. 한 국가의 국가적 이해관계나 경제적 이득관계에 따라서 이란과 같이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식의 굉장히 잔인한 역사들이 반복되는 것을 넘어서려는 노력들은 다자주의에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글로벌 선도국가라는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면 이 다자주의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저는 외교부장관님께 조금 더 여쭙보고 싶은 것은 한국이 아무래도, 우리 외교 역사는 개발도상국의 역사를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강대국들에 둘러싸여서 양자외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식의 양자 중심의 접근이 지금도 유효한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다자 경험이 많으신 장관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력들이 충분한지 그리고 전통적인 양자외교를 떠나서 다자외교 모델 그리고 AI나 다른 식의 과학기술 외교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동원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방향들을 좀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자외교나 양자외교나 이것은 사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자외교의 장인 유엔 같은 데서도 많은 양자적 협상 또 협의가 이루어져서 또 그것이 다자 체제 안에서 진전을 이루기도 합니다. 한국 외교는 이와 같이 다자와 양자를 모두 활용해서 우리 외교의 근본적인 목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는 데 제1의 목표로 삼고 여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좀 달리 한국이 좀 더 노력을 하면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브라질·칠레·알제んに 방문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결코 시대의 변화를 못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 AI를 비롯한 과학기술 외교입니다. 사실 AI와 관련해서는 여러 국가들 간에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단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부로서도 외교에 AI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또 외교에서 AI 분야에서 다자간 협력, 양자 간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고 관련 부처와도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에 위원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날 부처별 업무보고 진행하실 때 대통령께서 무상원조사업이 각 부처에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 정책의 효율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KOICA로

통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오늘 외교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4쪽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무상원조를 통합하겠다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보다 내년에는 기관도 좀 줄이고 사업도 건수를 줄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무상원조 시행 기관을 한 10~13개 정도로 해서 줄이겠다고 했는데 2026년 부처별로 무상 ODA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안 하는 부처가 없고요, 지자체도 하고 있고 교육부도 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하고 있고요. 사실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ODA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수원국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한국의 ODA 창구가 어디인지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이미 OECD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동료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재 한국이 하고 있는 ODA는 너무 많은 정부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ODA 전체 영향력과 질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장관께서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ODA는 국익이나 외교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집중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수원국을 대상으로 보면, 수원국의 상태로 보면 도대체 어디를 협의 창구로 그리고 기관마다 절차나 내용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원국에서는 혼선이나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이 문제는 사실은 좀 고질적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전문성을 좀 활용하고자,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보건 분야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런 분야를 가지고 개도국에 지원을 하고자 직접 콘택트를 해 가지고 ODA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KOICA 중심으로 하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OICA를 중심으로 해서 KOICA라는 브랜드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중복…… 초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에서부터……

○한정애 위원 마스터플랜을 또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외공관을 활용해야 됩니다. 재외공관을 반드시 통하도록 하고 어떤 기관이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그냥 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서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정애 위원 통합 플랫폼은 반드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국회 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분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상원조 구조가 무상원조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이나 또는 감독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부처가 지금 ODA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 예산 대비 ODA 비중을 보면 극히 일부입니다. 타 부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산을 심사하거나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었는지, 사용되었는지,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시라든지 집행의 효율성을 보는 부분도 사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 부처 무상원조사업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검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

는 문제가 또 하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KOICA를 중심으로 해서 무상원조 예산 집행이 조금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외통위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업 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따져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의 감독과 통제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주요국에 나가 있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이게 물론 수행기관별로 보면 다른 이유로 나가 있는 기관들도 있지만 이 기관들이 다 지금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원국으로 보면 이 업무는 저 기관을 가야 되고 이것은 ODA인데도 또 다른 기관을 가야 되고 하는, 그래서 수원국을 관리하는 입장이라든지 수원국의 입장에서 봐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ODA 사업과 관련해서는 KOICA가 중심이 되고 그 안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처의 협조를 받는다하더라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통합계획을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일원화하는 것, 이것은 일찌감치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통합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조금 더 서둘러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도 신속하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 여러 기관들이 원조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경쟁에 희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쪽 정부의 어느 특정 기관으로부터 그 기관이 우리의 이러한 분열된 상황을 이용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가급적 빠르게 통합계획을 만들고 플랫폼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 진행 경과를 꼭 위원회에 또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대식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대식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을 비롯해서 아침부터 다들 수고 많습니다.

장관님, 외교적인 언어보다도 여기가 국회니까 시원시원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트루스 소셜 외교부에서 구독합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대식 위원 구독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트루스 소셜을 외교부에서 구독하시냐고요.

○외교부장관 조현 저도 그것을 열어 봅니다.

○김대식 위원 열어 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얼마짜리를 쓰십니까? 최하 6만~10만 달러가 월에 나가는데 외교부에서는 얼마짜리를 쓰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는 돈 안 내고 그냥 쓰고 있는데요.

○김대식 위원 안 내요? 아니, 몇 초 빨리 보게 되면 6만~10만 달러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 돈으로 1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우리는 무료로 보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 개인적으로 그냥……

○김대식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보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정보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몇 초 먼저 보려고 하면 6만~10만 달러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외교부는 그냥 돈 지불 안 하고 하는 겁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아는 한 그런 예산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한미동맹 굳건하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대식 위원 믿어도 되겠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대식 위원 장관님이 여러 외교 경력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한미동맹 이야기를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것에는 상당히 좀 온도 차이가 있다고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무리 동맹관계라 하더라도 모든 정책에 모두 합의할 수는 없고 때로는 치열하게 이견을 놓고 다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매우 건강한 동맹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건강하게 동맹관계가 되고 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대식 위원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해 주시고.

첫 번째, 한미 양국 지난 10월에 UFS를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훈련이 시작된 17일, 아까도 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본인 SNS에 공개했습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리 공개되기 전에—다시 한번 묻겠습니다—축소 지시를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장관님 말씀대로 SNS를 보고 아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은 아까도 장관님께서 중간에 미국 국무위원들도 몰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우리 주미국대사관에서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장관님한테 이런 부분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니까 그게 공개된 직후에 우리 주미대사관은 물론이고 주한미국대사관과도 즉각 소통을 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하면 원래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사실상 미국이 합의해서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것을…… 축소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 당국과 미국 국무 당국이 또 아니면 국방부끼리 서로가 합의를 해서 축소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대통령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거기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래서 미국 당국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전쟁부장관이 지시를 해서 우리 국방부와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통보를, 지금 국방부가 물론 하지만 외교부에서도 긴밀하게 거기에 참여를 해서 서로가 공유를 하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협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에서 말씀하고 난 후에 미국 전쟁부에서 우리 외교 당국이라든지 이런 데 먼저 사전에 서류라든지 구두라든지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전쟁부가 아니고 저희는 국무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물론 국무부인데 전쟁부가 됐든 국무부가 됐든 간에 우리 외교부에 어떤 국무부에서 통보가 있었느냐고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통보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닙니다. 주미대사관에서 직접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오후에 장관님 이석을 조금 있으면 하셔야 되니까……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들어오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상당히 지금…… 장관님 초청으로 온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왕이 장관하고 우리 장관님하고 이 회담 속에서 미국이 예의주시할 건데 이 부분을 잘 외교적으로 서로가 오해가 없고 서로가 협력하고 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기원 간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평택갑 출신 홍기원입니다.

맨날 장관님들하고 가까이 있는 곳에서 질문하다가 이렇게 멀리 왔더니 가까이 있는 게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처음에 딱 접했을 때 놀라셨습니까, 안 놀라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관해서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국무부와 또 미국 NSC와 사전 교감을 늘 해 오던 것이라서 이게 축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북미 대화는 어떻게 하면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인가 이런 것을 해 왔기 때문에 경천동지할 정도로 놀라지는 않았습시다.

○**홍기원 위원** 사실 제 외교 경험에 비춰 보면 타국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냈다 그러면 엄청 놀라야 정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접했을 때 놀라지 않았습시다. 왜냐하면 워낙 이와 유사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국내에서는 외교 참사니 외교 실책이니 또 아마추어 외교니 이렇게 비판·비난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나 또는 민주당 의원들 또 전문가들, 언론인들이 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거든요. 한미연합훈련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 발표한 내용도 그렇고 또 이런 식으로 SNS에 올려서 발표하는 형식도 그렇고 이게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 아니냐, 이게 동맹한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의 비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홍기원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내에서는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미국에서는 자국의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데 이러한 현상 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어느 나라나 정부가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냥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국내의 비판이 좀 잘못된 거지요. 지금 타국의 정상이 연합훈련 축소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발표한 것은 미국 내에서 협의가 있었든 없었든 잘못된 거지요. 다만 우리가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외교부장관님이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일 뿐이지 미국을 탓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방송 나가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듣습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왜 냈을까? 그래서 이게 북한 김정은과 만나기 위한 좀 사전 정지작업으로 북한에서 원하는 내용을 들어주기 위해서 발표한 것 아니냐 또 이란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아서 발표한 것 아니냐, 사실 SNS 메시지를 보면 그 두 가지가 다 써 있으니까. 그런데 또 미국 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미투자가 지지부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런 보도도 있잖아요.

사실 외교 경험에 비춰 보면 어느 나라가 상대국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거나 불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낸 메시지를 가지고 이리 해석하고 저리 해석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고 뭐라 그러는데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이게 바로 변화된 외교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또 생기는 일이라고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주 마음속 깊이 헤아려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동맹국의 대통령의 텍스트 메시지를 뭐라고 비판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홍기원 위원**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타국과의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 내고 훈련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조정하자고 하고 축소하자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외교적으로 항의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지요. 다만 장관님께서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실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는 것은 그야말로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로잡아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석준**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질의 끝나 가는데요.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이번에 한미군사훈련 축소 이것을 두고 지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여야 생각이 다르고 또 국민들 생각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기대했던 상황보다 국가 국정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경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예를 들면 99%의 낙관적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1%의 굉장히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걸 대비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기본 태도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외교의 격언은 ‘최대한의 희망을 기대하면서 최악에 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맞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여러 가지 태도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고 되도록 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기대랑 달리 주변국들의 속셈이 다르고 그것이 또 현실로 맞닥뜨려서 우리에게서는 상상도 못 했던, 예기치 못했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 온다면 그때 닥쳐서는 이미 늦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정말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통해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한 군대, 강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국방예산을 들여서 우리 병력을 유지하고 무기체계를 또 개량시키고 이런 유사시에 대비하는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도 또한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모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상황이 예상되겠지만 항상 예기치 못했던 우리에게 닥쳐 올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설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완벽한 대비태세 또 거기에 대한 보완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 생업을 영위하시면서 편안한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우리 한국에 대한 태도가 요새 어떠냐, 지금 분명히 북미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미국이 과연 우리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북미회담을 할 거냐, 미북회담을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하고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장 송석준 지난번에 통상교섭본부장이 갑자기 심야에 경질됐어요.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 조현 경질된 사유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들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장 송석준 밝힐 수는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개인적인 일이라서 제가 밝히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송석준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어쨌든 이렇게 갑작스러운 경질은 대한민국 통상교섭에 심각한 차질을 유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평생 통상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지금 오히려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대미투자 제대로 적기에 이행 안 하고 있다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데 이분이 갑자기 경질됐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없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명쾌하게 잘 안 보이고, 물론 김정관 장관이 대신 급히 미국에 나가서 대응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바로 외교부장관님께서서는 통상외교에 산자부와 통상교섭본부가 역할을 하겠지만 사실상 더 넓게, 더 깊게 이 사안의 전후좌우를 보시고 미국과 한국 간의 통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조정하는 모든 회의에 그것이 통상 문제건 투자 문제건 제가 참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체되는 상황에서도 저희 외교부가 응분의 역할을 함으로써 결코 어디 구멍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물론 이재명 정부의 한 성원으로서 잘 소통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소통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다면 그 배경이 뭐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걸 직접적으로 모든 총체적인 전략과 책임을 져야 될 게 외교부장관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책임을 절감하고 있고요. 약 3주 전에는 그래서 강경화 주미대사를 서울에 정무 협의 차 불러 가지고 여러 관련 부처와 함께 회의도 하고, 그래서 한미 관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들을 다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그러면 이번에 강경화 주미대사가 와서 밝힌 가장 큰 한미 간에 걸림돌이 되는, 가장 우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몇 가지 지적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교부장관 조현 이미 언론에서도 다 나온 것들입니다. 투자가 약속만 됐지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

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회를 비롯한 제대로 된 절차를 다 거쳐서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외에 쿠광이라든지 또는 종교인 이슈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원칙에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 가진 기본원칙에 따라서 미측에 설명을 해 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이재명 정부가 말로만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페이스메이커,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조율해서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지만 페이스메이커가 아닌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트러블메이커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도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좀 전에 박충권 위원님께서도 마음의 상처가 많이 커 있으신데, 지금 북향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위원장 송석준 북향민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썼던 용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정부의 공식 용어로 또 당사자들인 탈북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듣기로도 많은 탈북민들께서는 북향민이라는 자체가 자기들에게 오히려 더 가슴 아프게 하는, 비수를 쏘는 용어다라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 여론조사 한 것도 보면 53.4%가 명칭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정말 우리 탈북민은 찾아온 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먼저 온 통일, 찾아온 통일, 이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그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뜻을 잘 살리는 통일정책이 되어야 통일의 정책이 제대로 현실적으로 성과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분들에게도 납득이 가게끔 한번 장관님 입장을 얘기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화를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하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시설입니다. 안성에 있습니다. 맨 처음 갔을 때 초등학교에 다녀온 아이들이 몇 명, 오후 한 3시쯤 이렇게 학교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또래쯤 되는데 ‘학교생활 재미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예요. 아이들이 막 놀려요’ 그래요. ‘뭐라고 놀려요?’ 그랬더니 ‘탈북자, 탈북자 XX’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히 다들 ‘탈북자라는 말이 싫어요?’ 했더니 ‘싫어요, 싫어요’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그게 배제와 차별의 언어인데 이것은 어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향민, 북에서 온 북한이탈주민 3만 4000명 중에 지금 대한민국에 3만 2000명이 정착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좋은 이름은 이름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헌법 10조에 우리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호, 지원, 안전 이런 등등으로 해서 범주화가 불가피합니다. 그랬을 때 본인들에게 가장 가치중립적으로,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온

소산이 북향민입니다.

그런데 삼사년 전에 공교롭게도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이용훈 주교님께서 선도하셔서 천주교에서 이 운동을 벌이셨습니다. 탈북자라고 하지 말아라,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쪽 들어 보니까 북향민이라는 말이 제일 적절해 보인다 해서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다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것 받아서 통일부가 여론조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북향민으로 정부에서, 통일부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은 개인의 자유니까, 표현의 자유니까 스스로를 ‘나는 탈북자다. 탈북민이다. 탈북민이라고 불러라’ 이것은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문서나 정책에 공식 용어로 쓸 때는 북향민으로 쓰는 것을 정부의 방침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책을 설명할 때 어르신이라든지 시니어라든지 존경과 배려를 담아서 쓰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념의 문제, 진영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송석준 정부의 입장은 이해합니다만 제가 느끼는 주변의 많은 분들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다는 점, 이것도 통일부에서는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우리 실제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 또 용어 선택이 있었으면 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유념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5분, 5분, 3분인데……

○위원장 송석준 혹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재강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송석준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시지요.

○이재강 위원 무제한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옳지 않습니다. 균형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석준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할 때도 가급적 시간을 좀 넣어 주세요. 그것은 좋은 지적이니까 제가 그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석준 고맙습니다.

정청래 위원님은 많이 어졌는데, 저도 가급적 많이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어기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 순서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더 질의를 이어 가시는 걸로 알고요 당초의 질의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준환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KOICA 이사장직무대행님 저 앞에 조금, 얼굴을 뵈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위원입니다.

ODA는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외교 자산입니다.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2025년 회계연도에 KOICA 해외원조사업 445건 가운데 20건이 중도 취소되었고 이 중 14건은 우리 정부가 상대 국가와 협상 없이, 얘기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직무대행님, 14개 사업이 일방 취소된 이유와 선정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2025년도에는 저희가 외교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간의 저성과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수원국하고 협의한 게 있고요, 한 5건……

○김준환 위원 예?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수원국 정부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수원국, 그러니까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도……

○김준환 위원 6건 협의하셨어요. 14건은 그냥 일방 취소하셨고.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예, 한 5건 정도는 협의했습니다.

○김준환 위원 그러니까 6건 더 하시고……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나머지는 외교부와 국조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성과 사업 위주로 해서 일단……

○김준환 위원 아니, 상대국에다가 그만두는 이유를 설명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리면……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그것은 저희 사무소하고 공관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왔습니다.

○김준환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취소 사업 중에 에티오피아 산림복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총사업비 145억 원, 이중에서 111억 원이 이미 집행됐어요, 한 80여% 가까이. 그런데 취소했어요. 이제 거의 다 되어가는 사업을 취소한 이유가 뭐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에티오피아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암하라주 농업사업이 있는데요. 암하라주 농업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암하라주 자체에서 내전이 발생해 가지고 더 이상 사업을……

○김준환 위원 그것은 한 20% 정도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김준환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80% 가까이 됐던 것들을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뭐냐고 여쭙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전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지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준환 위원 저희들한테 보낸 자료에는 그렇게 이유를 안 썼던데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예, 그것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이유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게 실무에서 해 주신 이유는 다른 거더라고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두 건이 있는데요. 에티오피아의 산림 및 토지 복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GGGI에서 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GGGI가 제대로

사업을 하는……

○**김준환 위원** 못 했다는 거지요. 역량이 딸렸다는 거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GGGI 쪽에서 한 것 중에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실시를 했고요. 그 외에……

○**김준환 위원** 대행님, 그러면 또 여쭙겠습니다. 역량이 딸린 사람들하고 77%까지, 언 80% 가까이 사업을 계속 이어 온 이유는 뭘니까, 그러면?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GGGI는 저희가 1200만 불 중에서 GGGI에 나가는 게 960만 불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한 41%고요. GGGI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지원한 것 중에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 368만 불을 다시 반납을 받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환 위원** 40%든 총괄적으로 77%든 이미 시작했을 때 보니까 같은 파트너가 도저히 그 사업을 같이 영위할 수 없는 정도의 능력과 그런 것을 가졌을 때 그 사업을 중단 하든지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하고 갑자기 2025년에 77%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완성이 되는 건데 나라에는 통보가 없이 하면 그게 모순도 되고 또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그 부분은 저희가 GGGI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수원국 정부에도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김준환 위원** 정부하고 협의했다고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예.

○**김준환 위원** 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저희가 1만ha에서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한 10% 정도는 산림 복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원국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준환 위원** 하던 사업이 거의 다 완성 단계에서 관두게 되면 특히 그 나라와 협의 없이 관두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ODA사업에 대한 신뢰도도 실추가 되고 외교적 마찰도 예상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같이 했던 파트너가 GGGI, 글로벌 녹색성장기구인데 그게 그렇게 능력이 없는 데면 처음부터 그 사람하고 하지 않든지 시작을 했을 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 팀을 배제하고 했든지 아니면 그때 철회를 했든지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중단해 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별로 제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이 취소되면서 남는 돈이 47억이더라고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예, 저희가……

○**김준환 위원** 20건에서 남는 사업이 47억 원인데 전용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디로 전용하셨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저희가 개도국 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요 이렇게 해당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니면 해당 국가에서 안 된 사업은 여타 사업으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최소화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김준환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배분권은 행정부가 임의로 운영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게 다수의 지적입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그래서 전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준환 위원** 아니, 전용률 최소화하든…… 그러면 100만 원을 전용한 것은 잘됐고 1000만 원을 전용하면 잘못된 겁니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법을 어기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유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용……

○**김준환 위원** 유념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위원장 송석준**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김준환 위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KOICA의 해외원조 사업에서 조언이나 받기 위해서 농림부든지 그 다음에 농업진흥공사든 경찰이든 여타 부처 공무원들 가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예.

○**김준환 위원** 가는데 그 사람들 소관 부처로부터 여비, 출장비 다 받지요? 임금 받지요? 원래 경찰이면 경찰로부터 받을 것 아닙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예.

○**김준환 위원** 그런데……

○**위원장 송석준** 김준환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 좀 활용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김준환 위원**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고동진 위원** 외교부장관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립외교원의 해킹 건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게 10개월 동안 뚫렸는데 어제 본 의원실에서 이 건에 대해서 KBS 취재가 됐고 9시 뉴스에 이게 나가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외교부는 규정에 따라서 외교사이버안전센터를 갖고 있고 용역 위탁을 통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고동진 위원** 외교사이버안전센터라고 하는 데가 각종 사이버 위협의 효율적인 탐지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 센터 보안관제 범위를 살펴보면 본부, 소속기관 및 재외공관의 정보통신망 모든 정보시스템, PC, 인터넷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뚫린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은 보안관제 범위에 해당하지만 이번 해킹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관제망에서 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빠져 있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막 조사를 해 보니까 국립외교원 직무연수과가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2022년도 구축을 했는데 해킹사고 조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본부의 모니터링을 안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전체 관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니다.

○고동진 위원 시스템이 관제망 바깥에 있으니까 외교부는 10개월 동안 해킹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고동진 위원 결국 관계기관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알게 됐다. 장관님,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어떤 정보가 나간 건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고동진 위원 국내 아니면 해외에 있는 외교관들의 이름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암호화된 비밀번호 그다음에 ID, 이 네 가지가 나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커를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어디서 그랬는지 말 그대로 해외에서 우리 ID라든가 외교관의 이름을 써 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다른 데다가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피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저희들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그 가능성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적인 방어조치를 지금 신속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도 국립외교원 시스템에 또 이런 일이 있는지 그래서 외교부 규정에 적시된 보안관제 범위 중 일부만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서기관을 통해서. 화면을 한번 좀 봐 주시면 외교부 답변입니다. 지침상 관제 범위는 용역업체가 관제할 수 있는 근거일 뿐이고 실제 관제 범위는 예산과 인원의 적정 한도에 따라 조정된다 이것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

○고동진 위원 이게 우리 외교부에서 받은 거예요, 사무관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규정에 명백히 보안관제 범위가 적혀 있어도 예산과 인원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해 관리한다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이번에 국립외교원 해킹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고 그래서 추가 예산 신청을 했고 또 조직을 확대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장관님, 이게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관제 망 밖 시스템 중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외교부의 사이버 보안관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를 하시고 미연동되거나 누락되거나 관제 범위 바깥에 있는 시스템은 즉각 연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동의합니다.

○**고동진 위원** 그래서 보안관제 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그다음에 업데이트, 필요한 인력·예산 확보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관련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맹성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저조해서 기금용도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오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거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맹성규 위원** 그런데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남북이 조금 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되면 제일 필요한 것이 투자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맞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런 의미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재원을 매년 그냥 불용시키는 지금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남북협력계정과 평화계정으로 구분한 다음에 일정한 불용 재원을 평화계정으로 넣어 놓고 향후에 예상되는 대규모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에 이 돈을 쓰게 되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좀 더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맹성규 위원님이 제출하신 법이 꼭 외통위를 통과해서 입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일부로서는 가장 바라는 바입니다.

○**맹성규 위원**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도 계신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남북협력기금을 그냥 다 불용시키지 말고 일정 부분을 합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국민의힘 쪽에서는 통일부장관을 지내신 권영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야 협조를 통해서 입법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예,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다음 외교부장관님, 중견국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필리핀 싱크탱크에서 중견국 동맹은 망상이다, 중견국 동맹이 미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가 5개년 군사협력을 선언하면서 한반도가 한미일·북중러 갈등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향점이 비슷한 중견국들이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중견국은 함께 행동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우리가 강대국의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중견국 간 연대 강화를 제안했고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나라가 한국임을 비공식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중견국의 외교를 통해서 전략적인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교부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저희 외교부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노력을 더욱 배가하고 있습니다. 중견국에는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보스에서 이 발언을 했던 카니 캐나다 총리도 이러한 중견국 연대가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미국과 함께, 미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맹성규 위원 제가 지금 질문에서 미국을 배제한다고 질문을 드렸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캐나다의 카니 총리가 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맹성규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견국, 장관님이 생각하고 있는 중견국 범주가 있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한국에게 제일 중요한 중견국들은 EU 일부 국가, 캐나다 그리고 호주, 아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성규 위원 그러면 그 개별적인 나라하고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협력적인 관계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외교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들 국가와 외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할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를 아쉽게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캐나다 의원연맹 회장으로서는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캐나다가 잠수함 외에도 협조를 원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외교부를 통해서 그런 구체적인 것을 전달받거나 그런 전략을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드리는 건데 캐나다를 포함해서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몇 개국, 협조가 가능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협력관계 발전 전략을 구체화시키셔서

개별적으로 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앞선 질문에 이어서 외교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국 측이 이란전 관련해서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우선은 좀 지원해 달라 그리고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논의하자 이런 얘기였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이게 마지막으로 지원 요청을 받은 게 언제였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정확한 날짜는……

○권영세 위원 언제쯤이었습니까, 월로 따졌을 때?

○외교부장관 조현 이번 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영세 위원 이번 달에? 그것 멀지도 않은데 그렇게 기억이 안 나세요?

○외교부장관 조현 이번 달이 아니라 한 달 내에……

○권영세 위원 한 달 내에?

○외교부장관 조현 예.

○권영세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초기에 그런 요청이……

○권영세 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게 몇 번이라고 할 수…… 숫자를 세기가 좀 곤란합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있었고 어쨌든 중간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달 내에 있었다 이 얘기겠네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후속 협상도 없이 그냥 딱 잘라서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후속 협상이 좀 진행은 됐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후속 협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관해서 한미 양측이 협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완전히……

그런데 트럼프는 ‘No Thanks’라고 단번에 거절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런 경우가 여러 번……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지금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권영세 위원 지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란전의 이유가 뭐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몇 가지 미국이 밝힌 사유 중에 첫 번째는……

○권영세 위원 우선 지금 트루스 소설에도 썼지만 이란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것 중

의 하나겠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걸 비핵화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는……

○권영세 위원 이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트루스 소셜에 보면 ‘이란의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Denuclearization)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했는데 한국이 거절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니까 그 표현에 관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권영세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게 주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비핵화가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라면 우리도 비핵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딱 잘라 거절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지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어저께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접촉을 했고 김정은 측으로부터 답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우리가 연락을 받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연락받은 건 없었네요, 미리.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미국 정부 자체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지요? 크게 변한 건 없지요, 여태까지의 입장에서?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권영세 위원 핵 동결로 끝내자 이런 걸로 바뀌었다거나 이런 건 없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공식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국 측하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 측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사전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데, 장관님은 한미관계가 굉장히 굳건하다고 조금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올해 4월,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정동영 장관께서, 여기 바로 참석하셨네요. 북한 구성 지역 관련 발언으로 해 가지고 위성락 안보실장께서는 ‘한미 간에 사달이 났다’ 이런 표현을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4월 달에?

○외교부장관 조현 예.

○권영세 위원 그래서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어서.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상당 부분 지금……

○권영세 위원 그게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정상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면?

그런데 구성 발언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 그것은 정보 당국 간에 있었던 협의에서 이미 상당 부분 문제

가 해소됐고……

○권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 공유가 재개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언제부터 됐지요, 제가 6월 달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확실하게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다행입니다.

쿠광 문제는 지금 특별히 진전이 된 게 없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일부 진전이 있고, 우리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면 행정부에서는……

○권영세 위원 나중에 또 다음 회의에서 그건 자세히 여쭙보기로 하고.

지금 한미 간의 외교·국방장관으로 투 플러스 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4년 개최되면서 그걸 정례화하기로 했잖아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한 적이 있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직 못 했습니다.

○권영세 위원 우리 정부에서 미국 측에 요청한 일은 있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시기를 찾아보자는 데, 그러니까 개최한다는 데는 합의가 있었으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정부가 전쟁에 휩싸이면서 국무부장관과 전쟁부장관이 동시에 시간을 내서 그 회의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권영세 위원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물론입니다. 가는 것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지금 한국하고 미국 사이의 주요 현안들, 이게 사실은 쿠광 문제 같은 경제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국방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래서 우선 국방장관이 지난번에 가서 헤그세스 전쟁부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왔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그 문제를 국방부장관은 완전히 국방에서 보겠지만 한미관계 틀에서 보려면 외교부장관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가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처음 제안한 게 언제 제안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수년 전에 제안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안규백 장관하고 저하고 캐나다 가서 투 플러스 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때도 한 번 시도를 했었고 날짜를 맞춰 보자고 했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측에서 바빠서 그렇다고 지금 장관은 얘기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확답을 못 주고 있다, 안 주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장관이 단독으로 했고 제가 또 마닐라에서 루비오 장관과 만나서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미관계가 별로 굳건해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건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님,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 디지털 플랫폼 관련한 내용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건 위원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이 이렇게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때 법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왜 행정부 간에 합의하는 내용에 입법부의 법 제정권을 제약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이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당시 장관님은 저건 그냥 국제 공통으로 다 쓰는, 다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의 우려는, 그렇지만 똑같은 얘기라도 양자적인 합의에 들어갔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지금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장 명의로 항의 서한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방미통위가 오늘 서한을 작성해서 송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건 위원 그런데 당초 미측에서 요청한 건 와서 이게 왜 문제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예 브리핑을 해 달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서한을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미측에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부족하면 저희들이 국회와 협의해서 그 법안의 취지와 표현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이걸 담을 때는 결국은 법이라는 용어는 빠졌으면 우리가 훨씬 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서 미측과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교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이 ‘현 정부가 선비핵화라는 정책 기조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북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사람으로서 우리 어떤 정부도 선비핵화론을 가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네바 합의도 동시행동 원칙에 기초한 거였고 6자회담 합의도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여러 가지 북한과의 로드맵도 우리의 행동과 북한의 행동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통일부장관님이 선비핵화론을 폐기했다고 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북핵 문제의 주무부처는 외교부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건 위원 저희가 선비핵화론을 폐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니요.

○김건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건 위원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서라도 동시행동에 기초한 협상을 앞으로 해서 북한을 최종적으로는 비핵화를 이루는 것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게 단계적 비핵화……

○김건 위원 그게 단계적 비핵화론인 거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 경축사에서는 ‘핵 없는 한반도’ 이렇게 말했는데 올해는 ‘핵 없는 세계 이정표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핵 없는 세계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건 저는 김정은이 처음에 비핵화를 전혀 얘기하지 않다가 전 세계 비핵화를 얘기한 것하고 너무 유사한 표현이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핵 포기나 한반도 비핵지대화 이런 걸 선제 조건 내세우던 북한의 억지 주장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핵 없는 세계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말씀하신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금방 얘기하신 선비핵화를 폐기했다는 표현은 그걸 얘기한 겁니다. 과거 보수 정부 때 비핵·개방 3000, 핵을 내려놓으면 3000달러를 만들어 주겠다 하는 선후를 정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은 병행론으로 추진해 왔던 거지요, 하노이든 싱가포르든요.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김건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나라에서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한 외교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너무 과도한 방위비 증액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분쟁지역에 파병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불평이 있다라고 해서 오롯이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정말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이 한미 군사연습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대응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만약에 미국에서 북한의 도발도 없는데 한미 군사연습을 확대하고 확장한다라고 그랬으면 우리 정부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김정

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라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거기에 거는 기대가 큰 사람인데요.

통일부장관님께 한번 여쭙볼게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군사합동훈련을 축소하고 조기 중단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군사연습과 관련해서요. 2018년 1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통해서 올림픽 휴전에 합의하면서 2·3월로 예정돼 있던 연합훈련을 4월 달로 미루고 그리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를 앞두고, 회담을 앞두고 8월 훈련을 연기했던 게 성공 사례지요.

그리고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고 나서 연습·훈련 폐지를 약속했으나 8월 달에 훈련을 재개하면서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았을 때 8월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불틴 보좌관을 질책합니다. 당신이 막았어야 하는데 이건 큰 실수이다. 당장 하루도 연장하지 말고 끝내라라고 지침을 줬습니다만 이미 엮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 한 번의 통 큰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축소가 본인이 기자들이 질문하기를 축소하는 것이 적성국—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 아니냐, 이랬을 때 답변을 이것은 상황을—한반도의 상황이지요—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는 훈련 축소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가 군사훈련의 축소를 통해서 이끌어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렇지요. 지금 현재 북이 늘 얘기하는 것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해 왔는데 그 핵심이 한미연합훈련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오늘 왕이 부장 만나시나요? 오늘 만나시나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지금 제가 사실은 그래서 시계를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떠나야 되는데……

○**김영호 위원** 오늘 만나는 일정은 언제 잡힌 거예요? 최근에 그냥 갑자기 잡힌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한참 전에 잡혔어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닙니다. 날짜와 관련해서는 계속 한중 간에 협의를 해 왔고 최근에 확정된 한 2주 전……

○**김영호 위원** 한 2주 전쯤이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김영호 위원** 오늘 어찌 됐든 외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으니 왕이 부장을 만나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중국의 입장은 어떤 것 같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

화 재개를 지지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중국 측의 입장을 만나기도 전에 먼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중국 측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문제는 평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북한 핵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왕이 부장이나 중국 측 정부는 사실 다자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거라는 일관적인 기조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도록 오늘 외교장관회담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다음은 존경하는 김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준형 위원** 장관님,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꼭……

장관님, 비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최근 발언에 가우뚱하는 게 있어서 해명의 기회를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통일부 합동 업무보고 후에 대통령께서 외교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고무되신 듯 후에 언론 브리핑에서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발언을 하셨어요. 다자회담 그리고 또 정동영 장관이 직접 거명하셨고 이상주의다, 현실을 모른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디스카운트해서 들으라, 저는 이해가 좀 안 갔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

나중에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지난 2월 위성락 안보실장이 경향신문에다가 한국 외교가 안되는 게 아마추어들이 너무 많다. 그것도 저는 그 아마추어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저는 내부라고 생각했고요. 다른 사람의 평가도 비슷합니다.

저는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렇게 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유엔대사 하시고 40년 동안 다자외교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이신 장관께서 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차지호 위원님이 WHO 하는 것도 너무 이상적인 거고 지금 어떤 전쟁에도 유엔의 존재감은 완전히 사라졌으면 우리 유엔 탈퇴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 좀 해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외교관이라면 지금의 4자든 6자든 잘 안되는 난망한 상황에서 그런 조건을 되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서 저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 주고 구체적인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을 움직이는 것이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형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 말씀을 그 후에 정동영 장관께서 하셔서 제가 탁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뜻에서 그 당시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준형 위원** 비판이 아니시고 그러면 긍정의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적어도 이상과 현실에 관해서는 제 뜻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곡돼서 제가 마치 비판이나 한 것처럼 들렸던 것에 대해서 아까 유감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준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다만 4자 회담, 다자회담 이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도 8·15 경축사에서 밝히신 것도 당사국 간의 협의를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준형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어서……

○**외교부장관 조현** 즉 뭐냐 하면 북미를 먼저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4자로 먼저 뛰면 오해를 받을까 봐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김준형 위원** 2분 남아서…… 다른 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왕이 방문 때문에 가시는데요. 같은 브리핑에서 물론 질문이 지금 중국의 상황이 변해서 비핵화 무용론을 얘기한 것에 대한 질문이기는 했지만 왕이 방문하는 것의 톱 프라이어리티(top priority)가 비핵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톱 프라이어리티라는 말을 직접 하시고요.

저는 그게 훨씬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올해 초에 한중정상회담 할 때 정상끼리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한테 요구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압박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라고 시진핑한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장관님은 불러서 비핵화를 강요한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조현 장관께서 인터뷰를 연합뉴스하고 하셔서 우리가 중국더러 빨리 와 달라고 한 적 없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게 의심이 되느냐 하면 제가 최근에 중국 최고위층한테 들은 불만 중의 하나가 윤석열 정부 때 한중 관계가 망쳤다가 이재명 정부의 한중정상회담 이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태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특히 글로벌 AI 대회에 고위층을 파견해 달라는 것에서—그냥 단순히 포럼입니다—그렇게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과장급을 보냈고요.

또 들리는 얘기가 이걸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윤석열 정부 당시 그랬습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잘해야 중국이 몸 달아서 한국한테 굶힌다. 지금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합뉴스의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조현** 중국에 대해서 일본 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한중일이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동북아에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한 것이지 어느 편을 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준형 위원** 그런데 빨리 와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가……

○**외교부장관 조현** 그다음에 빨리 와 달라고 한 것, 두 번째 그것은요 어떤 거였냐 하면 원래는 작년에 제가 가고 왕이 부장이 신속하게 오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자꾸 늦어져 가지고 해가 바뀌었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연초에 외교부장이 아프리카를 순방을 합

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늦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와 달라 그런 것은 아니었다.

○**김준형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

○**외교부장관 조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AI, 이게 포럼 형식이었지만 WAICO 국제기구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은 대사 참석을 검토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공교롭게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랬을 뿐입니다. 중국 측에서 우리의 참석에 대해서 무슨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

○**김준형 위원** 아니요. 저는 제가 불만을 직접 들었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그러니까 그럴지언정 우리한테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핵화가 톱 프라이어리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오늘 얘기할 협의체제는 비핵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톱 프라이어리티라고……

○**김준형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여러 가지 중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석준** 정리해 주시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바쁘실 테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상교섭본부장이 경질된 사유를 아신다고 하였고 그게 개인적인 사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예.

○**한동훈 위원**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외교 사안이잖아요, 지금 현재 투자협정을 이행하는지 여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측의 가장 중요한 장수가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고 외교적으로 볼 때도 이것 뭐지,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혹시 무슨 변고가 생긴 건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하루아침에 경질된 것은 개인 사정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개인 사정이 뭐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니까 세간에 돌듯이, 예를 들어서 세간에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경질했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본인은 ‘그런 얘기 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겁주는 문자를 돌리고 그리고 청와대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보기에든 갑자기 통상교섭본부…… 그리고 계속 최근에 러트닉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왜 빨리 이것 이행 안 하냐고 계속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 쪽의 헤드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실종된 겁니다. 그리고 이유 설명도 없어요. 그러면 미국 측도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면 미국 측에 혹시 이번 경질이 어떤 배경인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외교부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다만 김정관 장관이 지금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니까 미국에게 설명을 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왜 국민은 몰라야 하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은 통상산업부에서 아마 적절한 기회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 이렇게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공적인 이견으로 인한 경질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비위로 인한 경질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솔직히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동훈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면…… 지금 외교부장관님께서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상황은 아시는데 이게 그 정도의, 소위 말하는 가르마는 타 주셔야지 그게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혹시 산업부나 외교부에서 통상 관련해서 큰 이견이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헤드가 날아갈 정도의 상황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별것 아닌 사안을 엮어서 이견이 있는 공직자를 날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문제는 대단히 공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밝히시지 못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안을 김정관 장관이 돌아오는 대로 설명을 해서 적절하게……

○**한동훈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8월 14일 날 아주 핵심적인 우리의 국운을 좌우할 만한 미국과의 통상을 주도하는 핵심 간부가 갑자기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8월 19일이 되도록 국민이 왜 그런지 몰라야 되고 그렇게, ‘그런 것 있어’라고 쉬쉬하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입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동료 위원이신 김준형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하고 좀 연결된 건데요.

로이터통신에 나온 건데 ‘최근에 미국이 35개국에 AI 관련 협력에 대해서 중국·미국 중 양다리 걸치지 마라라는 식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중간지대는 없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예.

○**한동훈 위원** 그 보도와 같은 뉘앙스의 요구를 미국으로부터 받거나 실제로 이렇게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아직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 받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좀 연관된 것인데 아까 말한 중국의 AI 포럼 문제는 결국은 여기서 미국이 얘기하는 것과 미국 입장에

서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그런 것 하지 마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합니다. 결국은, 그런 데 아까 말씀하실 때 ‘원래 대사급으로 보낼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중국이 주도하는 AI 포럼 같은 데에 정말로 대사급을 보내실 생각입니까? 미국이 상당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미국의 그 의도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다만, 그러면 이렇게 여쭙보지요.

미국이 이런 AI 문제에 있어서, 특히 첨단기술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이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미국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도 있고 또 중국 측이 우리에게 요청을 해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사안별로 대응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쭙보지요.

제가 최근에 미국의 주요 인사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모스탄 대사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유명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순순히 한국으로 정상적으로 입국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태에서 출국금지가 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제가 들은 그분의 말씀은 ‘그렇게 정 싫으면 입국을 금지하지 입국을 시켜 놓고 출국을 금지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법 감정을 떠나서 미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의 컴플레인을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지금 ‘입국을 금지하지 그랬느냐’ 그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한동훈 위원** 그것 말고 그러면 모스탄 대사라는 분의 출국금지에 대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항의를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꼭 법의 집행이라는 설명에 대해서 미국 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니까 미국 측이 모스탄 전 대사라는 분의 출국금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 조현** 그것을 문제 제기라고 하기보다는 한미 관계의 여러 가지 서로 이견이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자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 그것을 국민들께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한동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본부장의 경질 사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장관님 말씀이 김정관

산자부장관이 미국을 다녀와서 소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는 말씀 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소명을 요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송석준 그것 굉장히 세간에……

○외교부장관 조현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장 송석준 의혹과 궁금증이 괜히 엉뚱한 방향으로 튀지 않도록 팩트는 팩트대로 좀 국민들에게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예.

○위원장 송석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현 외교부장관께서 오늘 예정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부득이 이석할 필요가 있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이석과 관련해서 사전에 양 교섭단체 간사실과 위원장 사이에 양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조현 위원장님, 한 가지, 떠나기 전에……

○위원장 송석준 그러시지요.

○외교부장관 조현 아까 존경하는 권영세 위원께서 정보 공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제가 정보 공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그 양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제가 정확히 모르는, 저희 부의 일이 아닌데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부와 국무부 간에도 정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당국 간에는 모르지만 외교부와 국무부 간에는 정책부서 간의 협력 또 정보 공유가 전혀 손상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 뜻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석준 잘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석준 김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건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송석준 1분 부탁드립니다.

○김건 위원 지금 장관님 답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정보,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님 구성 발언 때문에 한미 간의 정보 공유가 중단된 것이 회복됐느냐에 대해서 조현 장관께서 ‘회복이 됐다. 이제 정상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송석준 지금 김건 위원 지적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조현 제가 드린 말씀은 정보 당국 간의 정보 공유 문제는 제가 드리기에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정보 당국 간에 실제로 어떠한 정보 공유가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와 국무부 간에도 역시 정보 공유를 하고 정책 협의를 하는데 그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석준 됐습니까?

○**김건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그래서 아까는……

○**위원장 송석준** 한 번 더? 그러면 정말 30초 내에 확인 한번 해 주시지요.

○**김건 위원** 아까 장관님의 답변은 ‘이제 한미 간의 정보 교류에 문제가 전혀 없다. 구성 발언 이후에 중단됐던 것이 앞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국민들이 다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래서 문제가 아직 있다는 건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신 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외교부장관 조현**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됐고 그런 답변이 아니고 ‘어느 수준으로 정보 공유가 중단되거나 안 되거나 하다가 어느 수준으로 회복이 됐는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저로서는 외교 당국 간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고맙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장관님께서 이석하실 시간입니다. 이후에 외교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석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외교부1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날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부임 후에 처음으로 장관님 예방했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이기현 위원** 그런데 이 예방 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손 스틸 변호사—남편이지요—이례적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대사를 예방하는 자리기도 했고 또 통상 신임장 사본 제출은 대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관행은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관행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이기현 위원** 그러면 미셸 스틸 대사의 배우자가 동행한 것은 미셸 스틸 대사 측의 요청이었습니까, 아니면 외교부가 그렇게 같이 오시라 이렇게 권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쪽 요청에 따라서 그쪽 요청을 반영해 주는 차원에서……

○**이기현 위원** 다시 한번만요. 안 들립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미 측의 요청 사항이 좀 있었고요.

○이기현 위원 미 측의 요청 사항이 있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도……

○이기현 위원 왜 용인하셨어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부군이시지만 미국 정가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
고……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공화당 의장도 하였고, 얘기는 제가 또
기사를 봤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위원님.

○이기현 위원 외교부에서는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지금은 은퇴
했지만 한때 미국 정계에서 일했던 분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대선 때도 기여했다고 하니
이분을 통해서 혹시 미국 정부에 외교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분이 역할
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는 이런 외교부의 판단이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대통령이 신임장을 줄 때는 부부 동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외교부장관을 예방하는 대사가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관례에도 없고, 관
행적으로는 용인된다고 하지만 제가 차관님께 그런 케이스를 몇 건 들 수 있냐고 하면
몇 건 들 수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최근 제가, 저는 그 신임장 관여한 적이 없어서 최근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듣기에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외교부가 이렇게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차관님께서 차관님 입으로 지금 시인하셨
는데 저는 이런 것은 외교 관례에 있어서 대단히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적 관계를 이용하면 일정하게 외교부가 기대하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
겠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대한 요구 이런 것이 공식
채널을 우회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사적 채널을 통해서 외교부에 전달돼서 외교부가 빼
도 박도 못하고 그 강한 목소리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역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부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것은 첫 상견례와 비슷한 자리여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
는 그런 것이었고 그 부군되시는 분……

○이기현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스틸 대사 만날 때 국장 만나고 장관 만날 때 꼭 이러
게 배우자 데리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위해
서 그런 거고 공적인 채널은 미셸 스틸 대사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앞으로 일을 할 것이
고……

○이기현 위원 2차관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차관님, 안 보여서 제가 앞으로 좀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쿠팡 관련해서 미 법사위 하원의 실무보고서 스태프 리포트(staff report)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것이 많이 기사화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쿠팡이 또 미 하원에 여러 가지 로비를 했다는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쿠팡에 대한 과징금이 6246억 원, 언뜻 보면 역대 최고 금액이지만 대한민국 전체 국민, 경제활동하는 성인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과징금을 최대 매출의 3%까지 낼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한 2% 정도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외교부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보고를 이후에 들었더니 법사위에 가서, 법사위에 해당했던 의원을 찾아가서 설명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설명이 됐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하원 법사위에 이전에도 비공개 진술을 했었고요. 그리고 과기부 조사 결과를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의원실도 직접적으로 면담을 추진해서 저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참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뒤의 3분까지 끌어서 마무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번에 끝낼게요.

○위원장 송석준 그러면 2분으로 마무리해 주시지요.

○이기현 위원 아니요, 뒤에 3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송석준 3분을 그냥 같이 한꺼번에 붙여서 하신다?

○이기현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석준 우리 양당 간사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김대식 위원 예.

○위원장 송석준 그러면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께 3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짐 조던 법사위원장에게 충분히 설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지금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그리고 이것을 주도를 했었던 피츠제럴드 의원은 직접적으로 의원 면담은 아직까지 조정 중에 있고 대신에 그 밑에 실무진 그리고 보좌진을 접촉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여기의 차관님은 외교관 생활을, 이제 차관이 되신 거니까 직업적 외교관은 아니시지요? 저 뒤에 많은 외교관들께 한번 저는 같이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에 있어서 미국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대단히 큼니다. 한미동맹의 의미도 너무 컸고 저희들이 건국 이후에 미국과 정말로 많은 인연과 그리고 서로 상호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미 의회에 대한 외교부의 이 역량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 역량은 왜 축적되지 않는 거지요? 저는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도 북미국에 가고 미국 워싱턴DC에 가는 외교관들은 최고의 외교관들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왜 외교적, 의회에 대한 휴먼 네트워크 역량이 축적이 안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큰 사건이 터졌는데 아직도 해당 의원을 외교부에서, 미대사관에서 직접 만나지 못하고 보좌관들이나 만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저희 주미대사관에서 최대한으로 많은 접촉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문회사를 고용을 해서 저희가 쿠팡 로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보고서 대응과 관련해서도 오류 정정 및 그리고 유감 표명을 얘기를 하면서 쿠팡 주장만 반영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모든 조사 과정들이 공정하고 그리고 비차별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지금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짧아서……

얼마 전에 EU에서 있었던 EU 빅테크 사례 알고 계십니까? 실무 리포트 나온 이후에 이것이 청문회로 이어졌고 실제로 EU에서 미국 측에 1조 5000억 정도의 과징금을 물었더니 트럼프가 이것을 보복관세로 보복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저희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정말 잘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정말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국내 기업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이익을 내고 있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돈은 한국에서 벌고 그리고 법적 보호는 미국을 통해서 받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도록 정말로 외교부가 잘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명심을 하고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EU 관련해서는 EU의 디지털시장법과 저희 법과의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U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동향들은 저희가 주미대사관 그리고 여기 있는 미국대사관 통해서 계속 접촉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기현 위원 마이크가 꺼졌지만 딱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최고 외교관들이 미국과 외교 관계에서 오랜 시간의 경험들이 축적돼 있을 텐데 그것들이 저는 쌓여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다 사라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 당국 내에서도 미국 조야와 그리고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저희들의 인적 네트워크들이 계속 쌓여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쌓아 나가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를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통일부는 지난 8월 5일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통해 북미 대화를 견인하고 이를 남·북·미·중 4자 대화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장관님 안 계시지만—외교부 조현 장관님께서 이 구상을 두고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사후에 디스카운트라는 것까지 표현했는데 장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아까 말씀 중에 오전에 근본 문제를 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물론 그 핵심입니다만 그러나 주변 관련국과, 관련 당사국들과의 전략적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당사자 문제는, 관련 당사국 문제는 사실상 10·4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나와 있고 4·27 판문점선언에도 이미 3자 또는 4자가 적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소통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고맙습니다. 설혹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비판에 맞설 만큼 현재 통일부의 구상과 접근 전략이 얼마나 구체적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4자 대화 성사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 4자 평화 선언 추진이라고만 표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관님, 안타깝게도 현재는 북미 대화조차 성사되지 않은 상태인데 4자 대화 동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시겠다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답답한 상황에서 터져 나온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겁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하나의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의 지도자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시해 왔던 대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1기 때 군사훈련 중단을 통해서 평창 올림픽 휴전을 열었고 그리고 2019년 8월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북미 관계 단절 7년이라는 그런 후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있고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회동이,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11월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북도 정상국가를 향해서 가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을 APEC의 정상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선전 APEC 정상회의의 대성공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쳐다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장관님께서도 평소에 늘 주장하셨던 것인데 업무보고 시 언급하셨던 한

반도 평화특사, 아마도 4차 4자 대화 동력 확보라는 문제의식과 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사 임명 논의는 현재 어떠한 단계에 있습니까?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임명권자의 판단 영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임명권자 입장에서 적절한 시기에 아마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장관님,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임동원 특보가 미국 페리 조정관과 협의하여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인 페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6·15 정상회담의 토대를 만든 선례가 있습니다. 이번 한반도 평화특사도 그러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페리 특사를 설득했던 당시 임동원 수석의 노력은 우리 외교사에서 빛나는 역할입니다. 페리 장관이 서울에 내렸을 때만 해도 그는 대북 강경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페리 프로세스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의 주체적 노력이 빛은 결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쳐다보고 중국을 쳐다볼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얼마나 주체적인 노력을 하느냐 여기에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강 위원** 외교부 1차관님께, 방금 들으신 것처럼 통일부는 4자 대화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 경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님이 이상주의라고 평가하신 것도 나름의 우려가 있었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같은 여당입니다. 냉정한 평가와 협력이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도 통일부의 이러한 구상을 현실적인 전략으로 다듬어 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함께 협력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통일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도 통일부가 잘 공유하고 또 통일부가 구상하는 사안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정에 위원** 박윤주 차관님, 외교부 내 조직 산하기관 한·아프리카재단하고 경제안보 외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공공기관하고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이게 필요한 업무이기는 한데 이것을 꼭 부처 밖에 예산을 투입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을 이미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아프리카재단의 중점 추진 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및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지원하고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그리고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 파악 및 조사·연구로 분류가 되는데, 그간의 한·아프리카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기능 중복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7년 3월 13일 지금 존경하는 재외동포청장님께서도 이미 한번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KOTRA하고도 기능이 중복된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 내의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대외정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 KOTRA 등에서 이미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당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서도 이게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중복되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2025년 KOTRA가 아프리카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해서 주요 지원한 내역은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아프리카재단이 주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기업 및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지원의 경우에는 KOTRA가 저렇게 열심히 한국 기업에 대해서 상담 주선, 전시회 참가, 프로젝트 수주 지원, 조사 등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부분도 외교부 산하의 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교류재단에서 이미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유력인사 초청사업, 대학원생 장학생 지원, 외교관 펠로십, 글로벌 e스쿨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 파악이나 조사·연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관련한 연구보고서 발간, 한·아프리카 협력 국제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결국은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직접 문제 제기를 하신 상태예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 유사 중복기관에 대한 통합·폐합을 좀 논의해라라고 하신 만큼 해당되는 사업을 외교부 내 아프리카과로 편입시키는 방안 플러스 외교부 산하에 공공기관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다음에 외교부 안에 있는 경제안보외교센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 5월 30일 날 설립이 되었는데요. 공급망 등 우리 경제안보 현안의 모니터링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해당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을 보면, 2025년 사업인데요 경제안보 리뷰 발간하는 것 17건 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경제안보외교포럼 두 번 했는데 외부에다가 용역 했습니다. 민관 합동 전문가 간담회 개최 다섯 번 했는데 이것도 외부용역 했습니다. 유사 입장국 정부 및 싱크탱크들과의 교류 두 번은 자체적으로 하고 두 번은 외부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사업 중의 대부분을 외부용역에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2025년에 주요 활동 중에서, 외교안보센터에서 주요 활동을 보면 센터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 업무까지도 실제로는 외부에 용역을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글로벌 경제안보네트워크연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업 범위가 저렇습니다. 경제안보외교포럼 개최, 여기에 보면 해외 전문가 및 고위급 인사 발굴·섭외 그리고 주한대사관과의 정기회의 지원에서는 정기회의에 필요한 의제 발굴까지를 대외경

제정책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1억 6000인가를 주고요.

그러니까 회의 의제 발굴, 전문가 섭외, 최근 경제안보의 이슈 발굴 등 이것은 실제 경제안보외교센터가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런 것을 해야지만 전문성도 제고가 되고 대외 네트워크 구축이 제대로 본부 내에서 구축이 될 텐데 이게 어떻게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용역을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쓴 예산이 1억 6000인데요. 이 중에 인건비가 한 60%에 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민관 합동 전문가 간담회를 다섯 차례를 개최하면서 여기 보면 조선 에너지 AI 등 경제안보 업계 전문가 섭외 등을 모두 외부용역을 맡겼는데 이 외부용역은 서강대학교 산학연에다가 용역을 맡겼고요. 여기에 총 1억 1000만 원을……

존경하는 위원장님,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여기에 1억 10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60%를 차지했습니다. 다 외부에다가 용역을 맡긴 겁니다.

결국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리뷰 발간하는 것 그리고 연구기관과 연구협력 간의 MOU 체결한 것 정도 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교부 내 조직이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외교부 내 조직과 산하기관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개선방안 마련해서 본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예산이 너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정동영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2009년도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장관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벌써 17년이 지났어요.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2009년도에 외통위 하셨잖아요. 제가 민주평통 사무처장 할 때 저 자리에 앉으셨어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명사무처장이셨던 것 같아요.

○김대식 위원 저는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남북 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또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것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장관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정류이나 어떤 면을 보더라도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가 의견이 다릅니까? 나는 국무회의에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이렇게 갑론을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뭔가 의견이 나올 때는 원 보이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다 존재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시각과 관점이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매주 회의를 통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시다만 앞으로 더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봐서는 ‘뭘야. 같은 장관끼리 의견이 안 맞는 거야?’ 이렇게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비공개 때 서로 조율해서 바깥에 이야기가 나올 때는 원 보이스로 나오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팩트체크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두 가지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2026년 6월 18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공식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같은 날 통일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 공존을 추구할 수 없다’며 ‘2022년 국방백서 표현 변경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앞으로 국방백서 작성 과정에서 계속 조율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세계 어느 나라든 인접 국가 또는 특정 국가를 향해서 ‘적이다’ 이렇게 규정한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김대식 위원** 그래서 장관님이 8월 5일 날 대통령 업무보고 때 ‘주적’을 대결과 혐오를 조장하는 용어로 규정하고 ‘위협’이라는 표현을 쓰셨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대식 위원** 그러면 장관님의 말이 좀 쉽게 표현해서 위협이라는 성명 말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제가 묻는 겁니다. 위협이라는 표현은 장관님의 개인적인 표현입니까,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공식 표현입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이것은 대통령의 인식이면서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가장 그 생각에 근접하게 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해야 하겠다는 것이 국방백서에 표현된 내용인데 그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대통령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이게 유엔에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선이라고 쓰는 용어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국민의 합의와 총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지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김대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일부 생각과 국방부 생각과

외교부 생각 이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있어야 일반 국민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여기서 오해를 하나 교정할 것은 대통령 업무보고가 시간이 제약돼 있다 보니까 공론화하겠다는 얘기를 좀 설명하는 게 빠져서 통일부의 방침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통일부의 입장은 평화 공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름을 불러 주는 문제, 이것을 시민사회의 공론화를 지켜보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대식 위원** 그러면 장관님 생각에 공론화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예측을 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수용성이 높아졌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서로는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85년도의 이산가족 고향방문사업 합의서를 포함해서 모두 110건의 문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문서에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9월 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시에 ‘우리의 형제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됐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유엔 무대에서 발언하신 적도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공론화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그런 발언이 국민들 앞에 나왔으면 오히려 안정감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석준** 다음으로는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홍기원 존경하는 간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외교부 1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 혹시 백린이라는 화학물질을 아세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들어 봤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게 찾아보면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여 유독성 연기와 고열을 내는 위험물질인데 연막탄이나 소이탄, 조명탄 만들 때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체에 닿으면 뼈까지 태우는 심각한 화상을 유발하여 악마의 무기로 불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28일 날 평택시에서 받은 문자인데 17시 7분경 ‘평택시 서탄면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다 백린이 뭔지 검색해 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다들 인지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18시 13분에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은 부대 내 조치 완료,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로 복귀 바랍니다’ 이렇게 또 문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미군부대에 대해서 무슨 물질이 유출됐는지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평택시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외교부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이 건 관련해서는 기후부하고 저희가 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여기 북미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이쪽 포디움으로 좀 나와 주세요.

혹시 국장님은 K-55 미군기지 내에서 유출된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외교부북미국장 이원우** 예, 기후부를 통해서 저희가 미측과 소통을 했고……

○**홍기원 위원**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외교부북미국장 이원우** 저희가……

○**홍기원 위원**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외교부북미국장 이원우** 알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뭐예요, 그 유출된 게?

○**외교부북미국장 이원우** 미군이 백린이 아닌 표면 부식물질로 확인되었다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기후부에서요?

○**외교부북미국장 이원우** 아니요, 미군이 배포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기후부나 외교부는 평택시에 그런 내용을 알려 주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SOFA 책임자잖아요.

○**외교부북미국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기후부는 SOFA의 분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부대에 출입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북미국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런데 왜 지역주민들은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인데 무슨 물질이 유출됐는지 또 미군부대 내……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무슨 물질이 유출됐는지도 모르고 또 미군이 애초에 백린 물질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시민들한테 그런 무시무시한 문자를 보낸 건데 지금은 어떤 물질이 유출된 건지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또 하나는 미군부대에서 그렇게 발표했다는 얘기는 부대 안에 백린이 들어간 포탄이나 뭐가 있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아무도 알려 주는 데가 없습니다. 기후부에 물어봐도 알려 주지를 않아요.

○**외교부북미국장 이원우** 주한미군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지자체가 이런 정보를 적시에 공유받아야 된다, 그런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 오산 공군기지 측에서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잔류 물질이 백린이 아니다, 이게 표면 부식물질로 확인되었다고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잘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욱더 지자체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홍기원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에서는 기후부에 물어보면 SOFA에 따라서 미군 측의 그런 사항을 알려 줄 수 없다 그런 입장인 거고. 사실 물어보기 전에 기후부 또는 SOFA를 책임지는 외교부가 해당 지자체에 알려 줘야지요.

○**외교부북미국장 이원우** 일단 이 사건 당시에는 주한미군 차원에서 유출된 물질, 그러니까 백린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절차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더욱더 정확하고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홍기원 위원** 제가 다음번에 확인할 텐데 SOFA 책임자로서 해당 부처와 명확하게 그것에 관한 지침 같은 걸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기 후부나 또는 외교부가 책임지고 해당 지자체에 알려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미군부대 주변에 수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물질이 유출됐다고 피하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해제됐는데 도대체 어떤 물질이 유출됐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거예요.

○**외교부북미국장 이원우**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께서 느끼셨을 그런 걱정과 우려를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외교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외교부북미국장 이원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석준**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신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도 계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건 위원** 민주평통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일 대통령께서 민주평통 격려사를 하셨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예, 유라시아 지역회의에서요.

○**김건 위원** 그러면 그 격려사 초안은 평통사무처에서 작성해서 청와대에 올린 겁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대통령님 격려사에 대해서는 민주평통 차원에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초안을 작성해서 올렸냐고 묻는데 확인을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대통령실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격려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들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정책비서관실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해 드리는데요.

○**김건 위원** 거기서 대통령께서 ‘남과 북이 체제와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길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격려사에서. 여기서 ‘북한의 주권을 존중한다’ 이런 표현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권을 존중한다고 표현한 전례가 있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그것은 찾아보지 않았습시다라는 전제가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와 주권을 존중한다라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제시한 겁니다.

○**김건 위원** 아니, 체제를 존중한다는 것과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이지 않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제가 그것을 해석할 위치에는 있지 않습시다라는 체제를 존중한다는 그 범주 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체제를 존중하자는 범주 내의 얘기다, 다른 얘기는 아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예.

○**김건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해서 국제사회에서 각각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을 별개의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쓰는 것은 좀 다른 사안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그런데 체제와 주권을 존중하는 문제와……

○**김건 위원** 주권국가 인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국가를 승인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표현을 쓸 때 좀 면밀하게 따져 봐서 이때까지, 소위 말해서 과연 우리 정부의 입장과 맞는 것인지, 이제까지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오는 것이라면 그게 의미가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잘 따져 봐서 이런 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좀 더 많은 토론을 통해서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용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석준** 다음은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2차관님, 안 나오셔도 돼요. 거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쿠팡 관련해서 미국에 대해서 의원하고 접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러기 위해서 미국의 로비즘을 대한민국이 선임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자문회사입니다.

○**한동훈 위원** 자문회사를 선임했다는 그 자문회사의 역할은 뭐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미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재판적인 현안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 어떤 회사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구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아까 선임하셨다고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대한민국이 이 정도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을 못 만나서 자문회사를 별도로 세금을 들여서 선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세금 내는 국민들 대신해서 나온 국회의원이니까 물을 수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의원을 접촉할 수가 없어서 자문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미 간 관계에 있어서 현안 전반적인 것들을 자문을 구하는 회사에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앞에 나와서……

○한동훈 위원 제가 그 말씀 여쭙보고 싶습니다.

원래 외교에서 한미 관계의 문제는 미국에 있는 폼에게 자문을 구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한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자문회사 선임이 많이 합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짧으니까요.

이렇게 과거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문사를 선임한 전례가 많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다시 말씀……

○한동훈 위원 자문사를 이렇게 선임한 전례가 많이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저희가 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자문회사를 고용해서 저희가 보충적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면 미국에 있는 의원들과 접촉을 못 하는 이유는 뭘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의원에 대한 접촉이 조금 제한이 되어서 조정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연명 서한을 돌리거나 쿠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 일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알겠습니다.

1차관님, 보도에 보면 서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것과 연계된 뉘앙스로 미국 측에서 메모리 투자를 1호로 하라라는 식으로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한미 간에 지금 여러 가지 투자사업 관련해서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동훈 위원 없었다고 말씀 못 하시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제가 그 구체적인 확인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한동훈 위원 왜 확인을 하기 어려울까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지금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한동훈 위원 이것은 국내에 있어서 이재명 정권이 하고 있는 서남권 투자와 지금 우리가 대단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운이 걸려 있는 투자 협정 이행과 관련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해 주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그렇게 관련지어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적인 우리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지어서 미 측이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없고 각자 투자사업에 대해서 미 측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토의가……

○**한동훈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미국 측에서 서남권 반도체 투자에 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외교적으로는, 제가 언급한 외교채널을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위원** 그 외교채널은 통상교섭본부 등도 포함되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기본적으로 제가 외교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위원** 외교부만을 말씀드리는 것인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예.

○**한동훈 위원** 그러면 통상산업본부라든가 통상본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왔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박윤주** 아니요, 그 외교채널을 통해서 통상산업부 그러니까 통상부, 산업부 부분에 있어서 듣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위원** 제가 한 10초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송석준** 좋습니다.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1분만 더 드리시지요.

○**한동훈 위원** KOICA에서 나오신 분, 아까 제가 존경하는 김준환 위원님 말씀 듣고 이것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에티오피아에 관련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00억대가 진행되는데 77%가 진행됐는데 그것을 그냥 중단하고, 그러면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이그냥 중간에 날아가는 건가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아닙니다. 저희가 국제국에는 미리 돈을 지불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추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까 김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보면 70%가 아니라 저희가 반납을 받게 되면 한 40% 정도 됩니다.

○**한동훈 위원** 그러면 40%가 아니라 30% 정도는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겁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아닙니다. 저희가 건물을 짓고 중간에 스톱하다 보면 건물을 못 쓰는데요. 저희가 에티오피아의 산림·토지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역량 강화도 해 줬고 1만ha 중에서 한 1500ha 정도는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한동훈 위원**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그런 게 있습니

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그건 아닙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재강 위원 의정부시를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현재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흡수·통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PPT 보시면 그 과정이 원활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8월 7일 협력센터 직원 일동이 본 위원에게 보낸 호소문입니다. 비자발적 실직자에 대한 유관 공공기관 전환 배치, 퇴직위로금 등 직원들이 요청한 사항이 담겨 있는데 직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장님, 지난 4월 9일 법안소위 당시 담당 차장께서 다 붙는다는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미합격자 발생 시 공무원 기간제 채용, 유관 민간단체 취업 알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붙는다는 이 전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지금은 통합 일정에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고요. 통합을 위한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지금 현재 서류심사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면접으로 이어 집니다. 아직 시험이 진행 중인데 이 결과가 나와 봐야 실제로 여기에 합격한 사람과 아니면 혹시 탈락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탈락한 사람에 대한 그다음의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탈락자를 예상할 수도 없고요, 미리 예상해서 탈락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 둘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재강 위원 방금 경력경쟁채용 이야기하셨는데 이 채용이 또 재외동포 업무의 특수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023년 재외동포청 출범 당시 결과를 보면 62명 중 재단 출신 합격자는 20명, 32.3%에 그쳤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나머지는 공무원 출신 22명, 민간경력자 20명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이재강 위원 청장님, 이번 통합 과정에서 협력센터 직원 37명이 경력경쟁채용 자격을 얻었지요. 알고 있지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그래서 그 37명의 협력센터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을 위한 공개 경력채용시험 선발 인원도 37명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채용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혹시 채용되지 않은 인원들에 대해서 어떤 고용방안을……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그것은 이제 시험이 진행이 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저희들은 이 채용시험 자체가 통합을 위한 채용이기 때문에 재외동포 업무의 경력 등을 잘 고려해서 그런 문제들이 가산점으로 작용한다면 유리한 점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게 여타의 다른 지원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채용의 과정은 굉장히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협력센터 직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직까지의 재외동포 업무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저는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재강 위원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고용안정 방안이 마련되도록 책임 있는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그리고 만약에 시험 결과에 따라서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한 고용승계 방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강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김대식 간사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간 잠깐 스톱해 주시고 누가 대답하실지 그것만 좀…… 시간이 가니까. 1차관님이 하셔야 될까요? 쿠광 문제 내가 조금 의논하려고 그러는 건데. 1차관님 하실 겁니까, 2차관님 하실 겁니까?

○위원장 송석준 쿠광 문제를 외교부 1차관님, 2차관님 중에 누가 답변하십니까?

○김대식 위원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시간 관계상 앞에 좀…… 2차관님 나와 주시지요.

차관님, 외교는 희망을 기대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는 거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 외교부는 미국의 로비스트를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대식 위원 예?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제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김대식 위원 직접 고용 안 합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문회사입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직접 고용하든 안 하든 자문회사도 그거예요. 그것은 미국은 합법적이니까 그렇게 그것 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하니까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많이 만났어요.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 만났는데 쿠광 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 놓고 왔는데 외교부에서는 이 쿠광 사태를 이 현안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일단 여러 가지 사건이 얹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조사들이 계

속적으로 공정적으로 그리고 저희 법과 제도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원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조야에서 반미 정치세력의 부당한 미국 기업 탄압으로 보는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의 조야의 의원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의원 외교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교부에서 주미대 한민국대사관에 연락을 좀 취해서 이 쿠광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관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 이러면 본 의원실에 저하고 의논할 의향은 있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김대식 위원**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그러합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적극적으로 저희도 부족한 점을 파악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미국의 조야에 어떤 의원을 만나고 싶다, 그 로비스트 쓰지 마세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야지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에 예외 있습니까? 여기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외교부의 입장은 쿠광 사태가 한미 현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분리 대응해야 될 그러한 사법적인 문제다라는 점을 저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 양국 간 적어도 정부 간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치화해서 이것이 다른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는 점은 저희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대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외교라든지 정치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가야, 이것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외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김대식 위원** 그리고 쿠광 문제는 저하고 조금 의논을 긴밀하게, 비공개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니까 여야, 홍기원 간사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 좀 하십시오.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위원님께서 비공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정치적

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 오히려 다루기가 힘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로우키(lowkey)로 저희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 계시니까 여야 간사들 같이 의논을 좀 하자고요.

○**외교부제2차관 김진아**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석준**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원 간사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재외동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재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보충해서 저도 당부 말씀 드릴게요.

지난 4월에 재외동포기본법 통과시킬 때 센터 직원들 정부에서 다 최대한 구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하고 했잖아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홍기원 위원** 지금 서류전형 해 가지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서류전형 합격자가 결정되는 모양인데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이쪽에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 재외동포재단을 동포청으로 바꾸면서 협력센터에 남게 돼서 한번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분들인데 또다시 지금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이분들이 절대 개인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저희도 가능하면 아무튼 이번에 이 공개 경력경쟁채용 절차가 역시 통합을 위해서 시행되는 절차이니 만큼 최대한으로 협력센터 직원들이 합격을 하면 가장 좋은 방안인데요. 이게 말씀 그대로……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경쟁을 하는데 지원자를 막을 수는 없고 또 막아서 그 속에서…… 아니, 막지를 았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을 치러야 되고 그 결과는 사실 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도 사실 동포청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인사혁신처에서 심사위원들을 다 선발을 해서 거의 무작위로 아마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포청이 깊게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그러나 거기에 지금 서류전형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가점 기준에 동포 업무의 전문성, 동포 업무의 경력 등은 고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면들은 굉장히 합격을 위한 어떤 강점으로는 작용을 할 것이라라고 저희들도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예, 하여튼 좀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 문제인데요. 혹시나 여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한 경우에 조기에 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퇴직금이 지금 예산 항목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아니요. 지금 탈락자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홍기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10월 1일부로 해산되잖아요, 센터가.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홍기원 위원 그때까지 청장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그러니까 실제로 채용시험이 끝나고 나서 불합격자가 생길 경우에 그 불합격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가령 동포청에 기간제도 있고 공무원 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도 좀 해서 강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개 경쟁경쟁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 기간제나 공무원 같은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구제할 대책들은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예, 확실히 좀 챙겨 주세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알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석준 홍기원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협 청장님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제가 이렇게 두 화면을 보다 보니까 김경협 청장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조금 아쉬운 게,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이 아니고 기관장 자격으로 오신 거지요?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옆에 동료 기관장님들 한번 복장 보시면 넥타이들을 매셨지요? 넥타이를 매셨어요, 홍기원 간사님도 매셨고.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좀 한번 참고하십시오.

○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이제 추가질의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도 간단히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2개의 국가론, 북한은 2개의 적대적 국가론, 2개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면 지금 이재명 정부도 가장 남북관계 개선, 교류협력을 염원할 텐데 아마 역대 정부, 그 어느 때보다도 어찌면 우리에게서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북관계는 거의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정동영 최악의 상황 맞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예, 맞습니다. 지금 모든 대화 채널이 끊어지고 과거에 정말 여러 가지 빈약한 그런 어떤 물질적인 또는 기술적인, 기계적인 제약조건 속에서도 남북은 어떻게 됐든 핫라인이 유지가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나라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이 우리랑 이렇게 완벽하게 단절을 하고, 남북이 이제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 지향의 남북관계가 아니라 2개의 국가, 이 분단을 고착화하고 2개의 국가를 그야말로 이제는 구체화하려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장관으로서 어떤 각오와 또 남북관계가 도대체 언제쯤 좀 개선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이고 평화 공존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악의 조건인 것이 한반도 내적 구조와 한반도 바깥의 국제적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8년 전과 비교해서. 내적인 구조는 3년 전부터 북이 남쪽을 적대적 두 국가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려 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동맹 2개보다 복원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초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립무원이다. 우리에게 2개의 동맹이 있었는데 하나는 소멸했고—소련과의 동맹이지요—하나는 우리를 배신했다.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자위력’. 그때 미사일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를 비교하면 20년 뒤에 2개의 동맹이 완벽히 복원됐습니다. 이게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남북관계는 폐허입니다. 폐허는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신뢰를 세울 것인가, 첫 번째는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를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8·15 경축사 이후에 지속적으로 3원칙의 첫 번째,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화 공존의 의지를 남과 북이 공유할 때 다시 신뢰가 생기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합니다. 통일부는 바로 신뢰를 세워서 다시 정상적인……

금강산 관광 200만 명 가던 시대 얼마나 좋았습니까? 개성공단 125개의 공장이 돌아가던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 다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아까 김대식 간사님도 또 위원장님께서도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송 위원장님께서서는 정치 철학이 상생과 조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상생과 조화의 철학을 외통위에서 구현해서 합심해서 남북 관계의 정상화,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공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보다도 장관님의 그런 열망……

통일부장관을 지금 두 번째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위원장 송석준** 누구보다 크실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통일을 위한 방법이 뭔지도 아실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가 막연한 기대, 장밋빛 희망만 가지고서는 결코 통일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 2개의 적대국가론으로 최악의 이런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위원장 송석준**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우리 안보 상황을 보면 지금 한미군사훈련조차도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 이래서 평화가 보장되고 과연 우리의 안보가 보장될겠습니까?

거기에도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3개의 사관학교를,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다 그래서 군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군기와 사기를 먹고사는 우리 군대의 군기를 담당하는 방첩사령부를 해체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군 경험을 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이 큼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이런 안보환경, 거기에다가 북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고의 자위론, 자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핵 무력, 투발수단, 거기다가 실전 훈련, 최신 드론전에 지금 이미 최고의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그런 역대 최강의 북한의 군사력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막연하게 굴종적·환상적 대북관으로는 결코 북한이 우리에게 저절로 다가서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장관님, 통일은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국방부장관하고 외교부장관 또 대통령 정말 긴밀히 협조하셔서, 협의하셔서 말이 아닌 힘이 뒷받침되고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기반으로 대북 관계도 제대로 해야 우리가 현실적인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의 기운도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해 주셔서 환상적 대북관에서 벗어나서 현실적 그리고 또 미래의 실천 가능한 대북정책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훌륭한 말씀 공감하고요.

한 가지만 첨언드리면 말씀하신 튼튼한 국방 그것은 여야가 없습니다. 확고한 그런 안보능력을 바탕으로 평화공존을 추진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신념이고 철학입니다.

그리고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눈 떠 보니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군사력으로 세계 5위요 방위산업 역량으로 세계 4위요 그리고 우리의 국방비만 가지고도 북한 총 GDP의 1.4배에 달하는,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미동맹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평화의 전제 조건은 긴장 완화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훈련 축소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What I'm doing is making things safer'?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가 한반도의 상황을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석준**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새 여러 가지 제스처, 언어가 과연 한미동맹의 이상 징후는 아닌지 거기에 대해 냉철하게 현실을 좀 직시해 주시고요.

과거 베트남은 월맹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군사력과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이해진 안보 태세로 결국은 공산화가 됐습니다. 월남 패망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지금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보

다 더 역점을 뒤 주시기를 통일부뿐만 아니라 함께하신 외교부, 특히 이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정동영 예.

○위원장 송석준 고맙습니다.

○홍기원 위원 시간 재는 것 아무 소용이 없네, 마이크가 안 꺼지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송석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소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어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교섭단체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동진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김건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김준형 위원님, 김준환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 차지호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홍기원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련 기관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님과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기관장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고동진 권영세 김 건 김대식 김준형 김준환 맹성규 박성준 박정현 박충권
송석준 안철수 우원식 이기현 이재강 정점식 정청래 차지호 한동훈 한정애
홍기원

○청가 위원(2인)

박성준 안철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연광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조현

제1차관 박윤주

제2차관 김진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정연두

차관보 정의혜

대변인 박두순

공공외교대사 임상우

기획조정실장 김정한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장육진

경제외교조정관 박종한

기후변화대사 건종호

국제사이버협력대사 박영호

조정기획관 조기중

정보관리기획관 강근형

아시아태평양국장 이민경

북미국장 이원우

아프리카중동국장 정광용

영사안전국장 유병석

개발협력국장 이규호

공공문화외교국장 오진희

양자경제외교국장 김석우

한반도정책국장 백용진

국립외교원

원장 김홍규

교수부장 김수은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강명일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직무대행 김동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송기도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김영채

통일부

장관 정동영

차관 김남중

기획조정실장 구병삼
 통일정책실장 이종주
 평화교류실장 홍진석
 남북회담본부
 본부장 소봉석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장 이제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소장 최용석
 북한인권기록센터
 센터장 정소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방용승
 사무차장 박학민
 자문건의국장 김종진
 위원지원국장 송순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은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김종수
 경영기획본부장 이병도
 재외동포청
 청장 김경협
 차장 김민철
 재외동포정책국장 이기성
 교류협력국장 곽삼주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곽삼주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박정현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2026. 8. 18.

○의안 회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10.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522)

8월 11일 회부됨

○보고서 송부

2026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2026. 7. 30. 외교부 제출)

2026회계연도 2분기 예산 이·전용 명세서

(2026. 7. 30. 외교부 제출)

7월 30일 송부됨

2025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

(2026. 7. 30. 재정경제부 제출)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심사서

(2026. 7. 30. 재정경제부 제출)

7월 31일 송부됨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등 결정에 따른 개정 대상 법령 현황 알림(2026년 2분기)

(2026. 8. 4. 헌법재판소 제출)

8월 4일 송부됨

○진정서 송부**화천군 평화경제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 참고자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고자료로 송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 분	행정입법명	공포일	제출일
외교부훈령 제262호	외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2026. 8. 5.	2026. 8. 6.
외교부훈령 제263호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협상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 8. 10.	2026. 8. 10.
외교부공고 제2026-133호	「재외공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안 제출	2026. 8. 11.	2026. 8. 11.
대통령령 제36566호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8. 11.	2026. 8. 12.